

계간
ISSN 3022-0300

북한 지역연구

가을
2026
통권 제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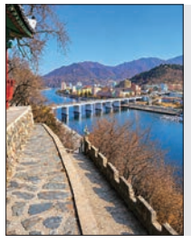
이번호 주제 : 자강도 강계시(江界市)

자강도 강계시 개관
강계 도시공간과 일상
강계의 나무
강계의 교회를 찾아서
강계와 기독교 다시 울려라, 그 종소리!
자강도를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
강계 출신의 유명인
강계의 대표음식
자강도의 사람 사는 이야기
언론에 비친 강계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가을 통권 제14호

이번호 주제 : **자강도 강계시(江界市)**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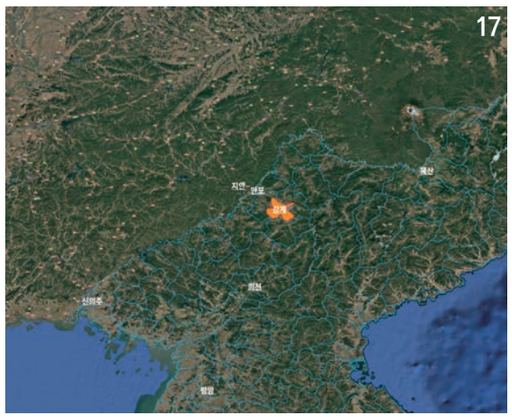
강계시 부창동에 위치한 망미정(望美亭)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 정자 앞으로 장자강이 흐르고 맞은편에는 주체사상탑이 위치한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서초, 바00281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6년 10월 12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02 컬럼 1 – 자강도 강계시 개관

17 컬럼 2 – 강계 도시공간과 일상_ 이시효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24 컬럼 3 – 강계의 나무_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대표 · 국민대학교교양대학겸임교수)

33 컬럼 4 – 강계의 교회를 찾아서

56 컬럼 5 – 강계와 기독교 다시 울려라, 그 종소리!_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63 자강도를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_ 자강도 사람들 (2000)

67 강계 출신의 유명인

70 강계의 대표음식_ 강냉이느릅쟁이국수, 언감자떡, 인풍술(강계포도술), 강계사과

72 자강도의 사람 사는 이야기

77 언론에 비친 강계_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강계 소식

칼럼 1

자강도 강계시 개관

1. 개요

강계는 자강도 중부에 위치한 도청 소재지이다. ‘강계’라는 지명은 강의 언저리(江界)라는 뜻으로서, 장자강 북천·남천 등 여러 개의 강하천들의 어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강계시는 여러 하천이 모이는 분지 지형이다. 시 주변으로는 낭림산맥과 강남산맥에서 갈라진 지맥들이 뻗어 있다. 무학산(1,084), 매바위산(1,135), 십이집산(1,046), 범암산(940), 장봉(951), 황철산(또는 공귀산, 1,123), 민봉(1,548), 초대봉(또는 촛대봉 1,426), 중지붕(1,241), 대웅산(1,123) 등 1천 미터 안팎의 산들이 솟아 있다. 강계시의 중심지에는 장자강과 북천, 남천이 합류한다. 예로부터 산이 많고 돌이 많으며, 맑은 수원이 흐르고, 크고 작은 물줄기가 합해지는 뜻에서 석주(石州), 청원(淸源)이라 부르기도 했다.

장자강은 룡림군 량림산(용림군 낭림산)의 광성령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흘러 압록강과 합쳐지는, 전체 길이 254km에 달하는 압록강의 제1지류이다. 옛 이름은 독로강(禿魯江)인데, 1976년 장자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북천과 남천은 각각 장강군 사덕산과 장강군 덕령봉에서 시작하여 장자강으로 흘러드는 장자강의 지류이다. 이 외에도 공인천, 공귀천, 두흥천, 연주천 등 여러 하천이 강계시 안을 흐른다. 이러한 강계의 특징으로 인해 강계는 수력발전이 발달하였고, 지역의 주요 전력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계시는 자강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강계군으로서 평안북도에 속해있었다. 당시 강계군의 면적은 5,395㎢로 북한의 군 중에 가장 넓은 군이었다. 1949년 1월 자강도가 신설되면서 강계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강계군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만포군과 전천군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강계군은 시로 승격하였고 이때 일부 지역이 분리되어 장강군이 되었다. 이후에도 주변 지역과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이 갖춰졌다.

2. 주요 지역과 시설

2002년 기준으로 강계시의 행정구역은 34개 동과 2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다.[1] 하지만 근래 북한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읍성동[2], 심천동[3], 외산동[4], 의정동[5]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6] 강계시의 인구는 2008년 기준 25만 1,971명이다. 자강도의 인구가 2008년 기준



1) 34동 (강서동, 고영1동, 고영2동, 공귀동, 공인동, 남문동, 남산동, 남천동, 내룡동, 대응동, 독산동, 동문동, 동부동, 로동자동, 류동, 만수동, 부창동, 북문동, 서산동, 석조동, 석현동, 수침동, 신문동, 야학동, 연석동, 연주동, 연풍동, 외룡동, 은정동, 의진동, 장자동, 충성동, 향로동, 흥주동), 2리(두흥리, 신흥리)

2) “강계시의 면모를 이채롭게 해주는 특색있는 불야경”, 노동신문 (2024.11.01.)

3) “강계시에 천여세대의 고층살림집이 새로 일떠선다”, 노동신문 (2025.03.17.)

4) “北 자강도, 강계시내 여성 80여명 ‘강계학생교복공장’ 배치”, SPN서울평양뉴스 (2026.06.05.),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89〉; “새로 일떠선 강계동물원”, 노동신문 (2025.09.08.)

5)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고 떨쳐나섰다”, 노동신문 (2026.08.06.)

6) 보도 내용을 참고할 때 이 중 읍성동은 시내 중심부로 보도가 되고 있고, 외산동(외산지구)은 강계동물원이 새로 건설된 곳으로 보도되는데, 독산에 위치해있던 기존 강계동물원과 같은 위치에 지어졌다면 외산동(외산지구)의 위치는 독산동, 서산동 인근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심천동은 대규모 살림집 건설이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 등으로 추정된다. 기존 행정구역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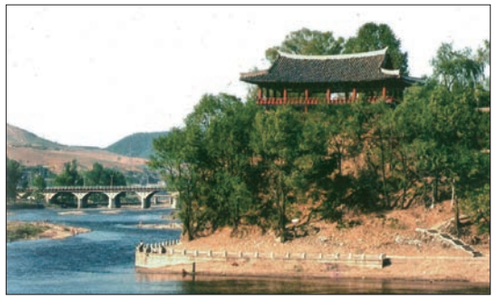
〈강계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사진=노동신문)〉

으로 129만 9,830명인데, 강계시는 자강도 안의 시군 중 면적은 가장 작지만 자강도 인구의 거진 20%가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서 강계시는 전 인구가 도시지역 거주자로 분류되는 등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7)]

강계시의 주요 시내 지역은 장자강과 북천이 만나는, 인풍루와 그 맞은편 지역이다. 2024년 4월 1일자 〈노동신문〉은 "강계시의 면모를 이채롭게 해주는 특색있는 불야경"이라는 기사를 통해 강계시가 불장식으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보도하였는데, 주요 지역으로 강계광장 주변의 건물과 충성동, 읍성동, 강서동, 외룡동 등이 언급되었다.

충성동은 장자강 동편에 위치하였으며 과거에는 인풍루가 있는 지역이라 하여 인풍동으로 불렸으나, 1981년 김일성의 동상이 있는 동이라 하여 충성동으로 개칭하였다.[8)] 충성동에 위치한 김일성-김정일 동상은 처음에는 김일성 동상만 자리하고 있었으나, 2012년 노동당 창건 67주년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나란히 건립했다. 지방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함께 세워진 것은 자강도가 처음이다.

〈장자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 국보 제64호 인풍루〉





〈2019년 강계시에 위치한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현지지도 당시 간부들을 질타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충성동과 인접한 만수동, 북문동(과거 강계읍성의 북문이 있던 지역), 남산동, 부창동 등 주변 지역에는 인풍루(북한 국보 64호)를 비롯하여 망미정(국보 65호), 강개아사(국보 66호) 등 사적지와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그리고 각종 관공서, 강계 광장, 백화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중 학생소년궁전은 각 지역마다 위치한 과학과 예체능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과외 교육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이다. 자강도의 경우 1964년 김일성이 자강도 현지지도 당시 직접 장소를 선정하였고 73년 3월 16일 직접 이름을 명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건물은 2016년 한 차례 리모델링 되었으나, 2019년에 이곳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공과 시설관리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틀려먹었다" 간부들을 추궁하였고[9)], 이에 다시 리모델링하여 2022년 10월 30일 준공했다.[10)]



〈2018년 개장한 강계스키장 (사진=노동신문)〉

충성동에서 북쪽으로 북천 너머를 바라보면 류동이 눈에 들어온다. 류동에는 강계시경기장, 빙상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2018년에는 종합체육관인 자강도체육관이 류동에 건설되었다. 류동에서 북천을 따라 올라가면 석조동과 연풍동 등이 나온다. 석조동(석조지구)에는 강계스키장이 위치해있다. 해당 지구 뒤편 자북산 건설된 강계스키장은 2018년 1월 7일 개장하였는데, 총 부지면적은 5만여㎡로 마식령스키장의 1천 400만㎡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상당히 작은 스키장이다. 석조동에서 북천 반대편인 연풍동에는 연풍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장자강 서편으로는 강서동과 외룡동 등이 눈에 들어온다. 강서동에는 만포선과 강계선이 분기하는 강계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 강계선 철로를 따라가 보면 강변을 따라 신강계역이 자리하고 있다. 역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발달된 주택지구를 살펴보면 강계사범대학(전 강계제1사범대학)을 지나 외룡동으로 이어진다. 외룡동은 원래 강계시장이 자리했던 곳이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해 외룡시장은 남천동으로 이전하였고, 독산동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섰다.[11)] 현재 강계시의 시장은 각각 남천동과 독산동, 연풍동 3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중 연풍시장은 나머지 두 곳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12)] 외룡동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독산 기슭을 따라 독산동과 서산동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독산동은 과거에는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개발이 추진되어 최근에는 현대화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이와 함께 폐쇄된 외룡시장의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13)]



〈망미정에서 바라본 강계시 장자강 서편〉

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cus National Report」
8) "충성동", 「조선향토문화대백과사전」, 제7권 (서울:평화문제연구소), p. 77.
9) "北김정은, 23일 만의 시찰서 간부들에 '직격탄'…"틀려먹었다"", 경북일보 (2019.06.0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283〉
10) "북, 김정은 '틀려먹었다' 질타한 학생소년궁전 새 단장", 한국경제(2022.10.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0316042Y〉
11) 홍민, 「2022 북한공식시장현황」, 서울:통일연구원 (2022), pp. 123-124.
12) 위의 책, p. 151.
13) 위의 책, p. 90-93.



강계선 철로를 따라 장자강을 건너 남천 강변을 연하여 이동하면 남문동, 남천동 등이 나온다. 과거 강계읍성의 남문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남문동에는 강계선 남문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보다 좀 더 안쪽에 위치한 남천동에는 기존 외룡동 시장이 이전한 남천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남천과 장자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장자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석현동이 눈에 들어온다. 석현동 인근에는 강계의학대학과 부속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얼마 전(2019년)에는 강계교원대학이 석현동에 새롭게 준공되어 이전하기도 했다.[14]

3. 교통

강계시는 높은 산악지역에 둘러쌓여 있는 내륙에 위치한 분지인 만큼 주변 지형이 험준하다. 이런 탓에 조선시대 강계 보부상들은 서쪽으로는 길을 열지 못하고 동쪽인 함흥을 왕래하며 교류하였다고 한다.[15] 현재는 안주 방면으로 자동차길이 열리고 만포선 철도가 개통하면서 교통이 발전하여 자강도 지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철도로는 북한의 13개 주요 간선철도 중 하나인 만포선(순천~만포청년)과 그 지선인 강계선(강계~랑님(낭림))이 지나간다. 도로로는 1급 도로인 평양-강계가 자강도 전천군, 성간군, 강계시를 경유한다. 강계-만포 사이는 2급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강계-화평, 강계-중강, 강계-김형직군, 강계-위원, 강계-고풍, 강계-초산, 강계-우시 등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

14)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 편찬실, 「북한지리지 4」, 서울:내숲 (2026), pp .67-69.

15) 위의 책, p. 31.

한편 최근 강계 시내에는 전기 버스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8월 6일 〈노동신문〉은 자강도당위원회가 새로운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20여 대의 축전지버스를 도입하여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소개하였다.[16]

4. 교육기관

강계는 도소재지로서 여러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강계의과대학, 강계교원대학, 강계사범대학, 강계공업대학, 강계농림대학, 강계체육대학 등이 있다.

강계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은 1953년에 설립되었다. 강계사범대학은 원래 강계 제1사범대학(대응동), 제2사범대학(공귀동)으로 각각 고등반(고등학교)과 중등반(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별도로 분리된 대학이었으나, 2020년 제2사범대학이 제1사범대학에 병합되는 형태로 통합되어 강계사범대학으로 병합한 것으로 알려진다.[17] 강계교원대학은 기존에는 동문동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9년 석현동에 1만 7천여 m2 부지에 새로 건설되었다. 강계사범대학 역시 새롭게 건설 중이다. 2026년 7월 6일자 〈노동신문〉은 "강계사범대학건설 적극 추진"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강계사범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대학으로 훌륭하게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고 보도했다.

강계체육대학은 1971년 강계체육전문학교로 발족되었고, 1988년 강계체육학원으로 되었다가 1993년 강계체육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다.[18] 대학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겨울 스포츠 종목의 전문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계의학대학은 1969년 개교한 자강도 내의 보건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의학부, 위생학부, 특설학부, 통신학부와 1년제 예비과가 설치되어 있다.[19] "강계의학대학", 2025년 7월 16일자 〈노동신문〉은 "강계의학대학 78명의 교원, 학생들이 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했던 랑림군의 한 살 난 어린이에게 자기의 살을 떼주어 완쾌시키는 공산주의적소행을 발휘

16) 북한도 전기버스 운행…평양은 노선 추가하고 강계는 새로 도입, 연합뉴스 (2026.08.25.),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61900504〉

17) "김정은 "국가 교육자금 줄여라"…초유의 사범대학 통합 결정", 데일리NK(2020.07.16.), 〈http://www.dailynk.com/김정은-국가-교육자금-줄여라-초유의-사범대학/〉

18) "강계체육대학", 「조선향토문화대백과사전」, 제7권 (서울:평화문제연구소), p.56

19) 위의 책, p. 56.

하였다"는 미담을 소개하기도 했다.[20]

5. 역사

1) 근대 이전

강계는 기원전에는 고조선이었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에 속한 땅이었다. 고구려 때는 지역 이름을 강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독로강'이라 불렀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발해의 영역이 되어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강계부 관청건물이었던 강계아사(출처:내나라)〉

강계는 서북 방면에서 침입해 오는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요충지였다. 발해 멸망 후에는 고려의 북진정책과 천리장성의 바깥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거란과 여진이 거주하였다. 고려 말기인 공민왕 10년(1361년)이 되어서야 해당 지역이 고려에 편입되어 독로강만호가 설치되었고, 1369년 만호부를 설치하면서 이름을 '강계'로 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여진 침입을 막는 방어의 중심지로서 1403년 강계부가 되었고 1413년 강계도호부가 되었다. 이후 강계는 세종의 북진정책으로 설치된 4군 6진 중 4군(려연, 자성, 우예, 무창; 현재의 중강군, 자성군, 김형직군 영역) 개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조선시대에 구축된, 강계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둘레 4.5km의 석성인 강계읍성은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강계는 평안도 동북 지방의 중심지이면서도 동시에 조선시대 내내 유배지이기도 했다. 성리학자 이언적이 을사사화의 여파로 강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숨졌고, 정철도 56세인 1591년 강계로 유배당했다가 임진왜란이 끝난 후 풀려나기도 했다.[21]

강계는 예로부터 미인, 포수, 산삼의 고을로 유명했다. 일찍부터 "강계 색시라고 다 미인인가"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남남북녀(南男北女), 관북미색(關北美色) 등 아름다운 북쪽 여성의 대표 격으로 강계 미인이 이야기되곤 했다. 강계 포수는 날래고 담대하며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였다. 강계포수는 1871년 신미양요 당시 강화도 전투에서 활약하였고,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흥미롭게도 강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 계양산과 원적산 지역에서도 강계 포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져온다.

> *하루는 계양산 너머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소를 물고 간 일이 벌어졌다. 소를 키우던 새신랑은 산에 소를 먹이러 갈 수 없게 되자, 직접 소를 먹일 풀을 베러 원적산을 올랐으나 그만 호환을 당하고 만다. 이 소식을 접한 부평 부사가 호랑이 퇴치를 요청하는 방을 붙였고, 이 포고를 보고 전국에서 모여든 포수 중에 강계 포수 강만수가 호랑이를 퇴치했다. 상급과 호랑이 가죽을 받은 그는 돌아가는 길에 원적산 아랫마을에 들러 과부가 된 새색시에게 호랑이 가죽을 판 돈을 주고 위로했다.*[22]

강계는 또한 산삼으로도 유명했다. 강계는 한반도 최대의 산삼 산지였고 인삼 재배가 가능해진 19세기 이후까지도 산삼의 현물 채취가 지속되는 곳이기도 했다.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산삼 채취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산삼을 공물로 납부하였는데, 강계 지역에서는 채삼(採蔘) 절기에 압록강 유역에서 국경수비를 담당하는 군인과 집집마다 차출된 강계 주민들로 구성된 파수군이 산삼 채취에 동원되었고, 그 규모가 연간 8~9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23] 강계 산삼은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도 판매되었다. 일본의 경우 송도(개성)상인들이 강계에서 산삼을 구입하고, 세삼(稅蔘, 세금으로 납부되는 산삼)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동래(부산)를 거쳐 일본으로 판매하였다.[24]

2)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 강계는 독립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당시 강계에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는데, 학교의 교원과 학생, 기독교와 천도교 세력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었다.[25] 영실중학교 교사 김경하와 동료 교사이자 기독교인 정준(鄭儁), 교회 장로이자 명신학교 학감인 한봉민(韓奉珉) 등이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장날

20) "지극한 정성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 – 강계의학대학의 교원, 학생들속에서 발휘된 공산주의적소행", 노동신문 (2025.07.16.)

21)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 편찬실, 앞의 책, pp. 33-45.

22) "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혀먹다", 지역N문화 홈페이지, 〈https://ncms.nculture.org/traditional-stories/story/6428〉(검색일: 2026.09.29.)

23) 이하얀(2025), 「산삼과 심마니의 민속문화: 생산 관행과 소비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1-63.

24) 위의 책, pp.72-78.

25) "강계 3·1운동",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982〉(검색일: 2026.09.10.)

인 4월 8일에 맞춰 오전 11시 남장대(南將臺) 예배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를 연호하며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며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등 약 700~800여 명으로 시작된 행진은 곧 수천 명 규모로 불어났다. 하지만 남문에서 행진한 시위 행렬이 북문에 이르자, 일본군은 시위 군중을 향해 아무런 사전경고 없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시위를 이끌던 정준 등 4명[26]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강계는 압록강변 한반도 북쪽 경계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무장 독립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연표(1930)에 따르면, 강계 지역에서 1920년 6월에서 1925년 6월까지 5년간 58회에 걸쳐 충돌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발행)에 의하면, 강계군 출신으로 무장 독립단 또는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순국 내지 전사한 사람만도 이응서(李應瑞)·김용규(金用奎) 등 40명이나 된다. 이중 이응서는, 3.1운동 이후 남만주로 이주하여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강계영림서를 습격하였고, 그 이후에서 격렬하게 무장독립활동을 전개하다가 1928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대표적인 강계 출신 독립운동가이다.[27]

1930년대 이후 강계는 일제의 대륙 진출과 내륙의 임업 자원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았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강계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평안도 순천에서부터 강계를 거쳐 만포를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만포선을 착공하여 1939년 전 구간 개통하였다. 이를 통해 강계(당시 강계군)는 당시 평안북도 내륙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인구도 1943년 기준 21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28]

광복 직후인 1946년 강계읍은 강계면으로 강등되기도 했지만, 1949년 자강도가 신설되면서 기존 강계군이 쪼개져 만포군과 전천군, 장강군이 신설되면서 강계면은 자강도 강계시로 승격되었고, 자강도 도소재지가 되었다.[29]

한국전쟁 시기 강계는 북한의 임시 수도로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다. UN군이 북진하자 북한은 55일간 강계로 주요 지도부를 옮겼고, 강계는 1950년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55일간 임시 수도 역할을 감당했다. 북한은 당시 어린 김정일과 그 일행이 1950년 10월 2일에서 24일까지 강계시 장자산 골짜기에 은신해 있었는데, 김정일이 장자산에서 전쟁 승리를 기원하며 두 그루의 잣나무를 심었다고 교육하고 있다.[30] 이 두 그루의 잣나무는 1982년 12월 북한의 천연기념물 제410호로 지정되었고, 그 주변으로 장자산혁명사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강계를 비롯한 자강도 지역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북한 당국에게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한국전쟁 시기부터 이 지역으로 군수시설을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 강계와 자강도에 형성된 군수공업기지로 이어졌다.[31]



〈북한 장자산혁명사적지에 위치한 두 그루의 잣나무 (사진=노동신문)〉

6. 산업

광복 이전 강계는 화전을 통해 주로 감자, 귀리, 조 등을 생산하던 농촌지역이었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강계시를 중심으로 전천군, 희천시 등을 포함하는 강계공업지구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 '4대군사노선'의 추진과 함께 공장 시설 대부분을 지하화하였다. 희천공장기계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2.8기계공장, 강계뜨락또르공장, 천리마타이어공장, 9월방직공장 등이 대표적인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강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는 주요 군수 공장은 강계화학공장(361호 공장, 생화학무기종합공장), 강계뜨락또르공장(26호 공장, 다양한 포탄과 폭탄 등 다양한 무기와 탄약 생산), 강계정밀기계공장(93호 공장, 소구경 탄약 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351호 공장, 전 독로강공작기계공장, 군수공장에 필요한 공구 생산), 9월방직공장(군복용 천 생산)등이 있다.[32] 이러한 군수공업시설 외에도 강계연필공장, 강계포도술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신발공장 등 일용품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들도 들어서 있다.

강계는 지역의 전력 생산에도 핵심적인 곳이다. 여러 강이 모이는 지리적 특

---

26) 사망자는 각각 영실중학교 교사이자 시를 주도했던 정준, 천도교인 김병찬(金秉賛), 상인 손주송(孫周松), 전도사인 인국원(印國元)의 부인으로 임신 8개월의 몸이던 한 씨(韓氏)로 알려진다. (참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윤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main.do〉 (검색일: 2026.09.10.)

27) "이응서",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홈페이지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6818&kwd=이응서〉 (검색일: 2026.09.29.)

28) "강계군",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979〉 (검색일: 2026.09.10.)

29) "자강도 강계시",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mc=AD0101&ac=A0401〉 (검색일: 2026.9.10.)

30) 로경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어린시절(소학교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13.; 강채연,「북한도시이해」 서울:바른북스 (2024), pp.192-193. 재인용

31) "강계공업지구",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978〉 (검색일: 2026.09.10.)

32) 참조: 강채연, 「북한도시이해」 서울:바른북스 (2024), p. 192 ; 오경섭 외,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서울:통일연구원 (2018)


〈흥주 청년 2호 발전소〉

성상 주로 수력을 이용한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었다. 대형 발전소로는 강계 청년발전소가 있고, 중소형 발전소로는 공인발전소, 공귀발전소, 해남 1호, 2호, 3호 발전소 등이 있다. 이 중 자강도 장강군과 강계시에 위치한 강계청년발전소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착공하였으나 미완공 상태로 있던 것을 1958년 재착공하여 1964년 완공한 것이다. 이 발전소는 총 4곳의 발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이 도 전력 총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33] 강계를 비롯한 자강도에는 특별히 고난의 행군 당시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2022년 6월 19일자 로동신문은 '고난의 행군' 시절 자강도는 강계시를 비롯하여 장강군, 성간군 등 여러 곳에 29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170여개의 지방 산업공장 생산을 보장하고, 2만 1,300여 세대의 살림집, 1,700여 세대의 전기난방을 실현했다고 보도했다.[34]

7. 강계정신

중소형 발전소 건설은 강계의 상징이 된 '강계정신' 슬로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계정신은 1998년 2월 16일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최후승리의 강행군을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려면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2000년 4월 22일 〈노동신문〉과 〈근로자〉에 실린 공동사설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에서 "강계정신"이라는 용어로 정착된다.[35] 당시 북한은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최악의 경제난과 대기근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 된 김정일이 첫 번째 현지지도 지역으로 찾은 곳은 바로 자강도였다. 자강도를 일주일간 현지지도하면서 김정일은 당시 자강도가 도당책임비서 연형묵의 주도 아래 자체적으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과 식량문제 해결에 힘쓴 모습을 통해 보여준 억척스러운 투쟁 기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강계정신'이라는 구호로 대대적으로 내세웠다.[36] 김정일 시대 들어 첫 번째로 제시된 경제 선동 구호이다.

강계정신의 시작이 된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주도한 당시 자강도당 책임비서 연형묵은 우리에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수석대표로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항일 빨치산 유가족으로서 북한의 경제와 국방공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당 중공업부 부부장과 부장, 노동당 비서, 정무원 부총리 겸 기계공업위원장과 제1부총리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 정무원 총리에 임명됐다. 그러나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 접어들면서 1992년 총리에서 해임되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후, 자강도 당 책임비서로 내려갔다. 자강도에서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강계정신'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든 그는,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무대에 복귀하였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랐지만 2005년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37]


〈1991년 12월 13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타결된 후 연형묵(왼쪽) 당시 북한 정무원 총리와 정원식(오른쪽) 당시 남한 국무총리가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8. 북한 지도자의 관심 지역, 강계와 자강도

'강계정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계와 자강도는 험준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수공업의 중심이자 군사적 거점 등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북한 지도자들이 대대로 중요하게 여겨온 지역이다. 김정은도 강계를 비롯한 자강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2013년 김정은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모란봉악단을 대동하여 위문공연을 열어주었다. 공연 후 김정은은 근로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김정은이 현지지도 중 주민들 앞에서 한 첫 연설이었다.[38]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4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한 후,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은의 공개 활동도 자강도 군수 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재개되었다.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

3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 편찬실 (2026), 앞의 책, p. 62.

34) 위의 책, p. 64.

35) 김은정 (2008), "총서 ≪불멸의 향도≫『강계정신』에 나타난 고난의 일상화와 희생의 양상", 국제어문학회「국제어문」42권, pp. 442-443.

36) "강계정신", 「NK조선」〈https://m.nk.chosun.com/bbs/view.html?idxno=3028&sc_category=〉(검색일, 2026.09.29.)

37) "[북한 경제를 이끈 총리傳(7)] '김정일의 예스맨' 연형묵 총리", 중앙일보 (2017.05.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79334〉; "북 연형묵은 누구인가?", 한겨레 (2005.10.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578.html〉

38) "[클로즈업 북한] 김정은의 '자강도 사랑'", KBS 남북의 창 (2013.07.0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686488〉

북하면서 북러 밀착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에도 김정은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을 비롯한 자강도 군수공장을 시찰(2023년 8월 3~5일)하였다. 홍민(2023)은 이러한 김정은의 군수 공장 현지지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군수공장 현지지도는 군사보안차원에서 '기계공장'명칭을 사용하거나 방문 자체를 비공개로 해온 만큼, "강경한 정책 전환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 행보로 강계시 일대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분석하였다.[39]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관계가 강화되고 군수품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은 북한 체제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지도자의 깊은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 강계시는 당국 차원에서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강계시는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주요 도시개발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만포시·강계시건설총계획이 발표되었다. 외동-독산지구, 류동지구, 만수-남산-남천지구 등에서는 공공시설 및 아파트 건설이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40] 2025년에도 강계시 외룡동, 심천동 지구 등에서 천여 세대 고층 살림집 건설에 진입했고[41], 올 9월에는 1단계 살림집 건설이 완료되고 2단계 건설이 시작되었다.[42]

2012~2022년 자강도 건설 동향을 살펴보면 자강도 전체 건설의 절반 가까이가 강계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인프라, 공장기업소, 문화생활 건설이 두드러진다. 강계교원대학,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교육시설, 강계잔디연구소, 자강도기상수문분국, 도시설계연구소 등 연구시설, 강계스키장, 강계체육관, 강계입체율동영화관, 인민풍속교재원, 예술극장, 잔디축구장 등 문화생활시설, 강계가방공장, 강계고려약국가공공장, 자강첨가제공장, 편직공장 같은 공장기업소 등이 건설되었다. 이 외에도 인프라 시설로 강계시 오물처리공장, 흥주청년 3, 4호 발전소, 농축수산업 관련 버섯공장, 모체양묘장이나 보건의료 관련 보건산소공급소, 양로원, 양생원 등이 건설되었다.[43]

군수공업이 밀집한 만큼 자강도 지역은 필연적으로 외부 노출이 제한적이고 보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이 지역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평양과 유사한 특별 허가증이 필요했다고 한다. 2024년 7월 압록강 유역 수해 당시에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은 자강도로 추정이 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 침수지역을 시찰했던 신의주 등과는 달리 자강도는 약 석 달간 발걸음을 하지 않았는데, 군수공업시설이 집중된 지역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44]

9. 마무리하며: 선전과 모범의 빛과 그림자

어떤 국가, 지역,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지리적 요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후와 안정적인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과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생산 환경 등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계시를 위시한 자강도는 분명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필진이 집필에 참여한 〈조선향토대백과〉에서 자강도를 "일제시기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수준이 제일 낮은 지역의 하나로서 감자나 겨우 파먹고 사는 무지와 몽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45]고 묘사할 만큼 예로부터 척박한 산악지대로서 농사가 어렵고 산삼 채취나 화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였고, 현재와 같은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강계시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투자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관심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군수공업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도 높은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에 비해 개인의 자유는 더 제한되고 당국의 공급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의 정책적 실책이나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직격으로 받는 곳 역시 이 지역이었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도 자강도가 꼽히는데, 국가의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난을 타개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곳은 북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꼽히며, 그러다 보니 북한 내에서 강계와 자강도는 경제적으로 못사는 지역으로 흔히들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은 러시아로의 군수품 수출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산업적 호황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39) 홍민 (2023), "북한 김정은 주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3.08.17.) CO 23-22.

40) 홍민 외,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 2022 북한도시포럼 자료집」, 서울:통일연구원 (2022), pp. 51-52.

41) "北 자강도 강계시에 천여 세대 고층살림집 건설", SPN서울평양뉴스(2025.03.17.)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24

42) "[북한단신] 강계시에 수천세대 주택 건설", 연합뉴스(2026.09.28.),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36800504〉

43) 홍민 외 (2022), p. 44.

44) "김정은 숨기고 싶은 시설 뭐길래…자강도만 쏙 빼고 시찰 돈다" 중앙일보(2024.08.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964〉

45) 「조선향토문화대백과사전」, 제7권 (서울:평화문제연구소), p. 44.


〈강계시 야경〉

지 의문스럽다.

북한은 '강계 정신'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이곳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선전해왔다. 그렇지만 '강계 정신'이 대기근 시기에 제시된 점을 생각하면, 국가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 등에 동원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모범'이자 '중요 기지'로 칭송 받아온 강계와 자강도에는,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그늘에 갇혀 극한까지 동원되고 자율성을 제약당한 주민들의 씁쓸한 아이러니가 자리 잡고 있다.

험준한 산세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독특한 지역 문화를 꽃피워온 강계는 이제 북한 내에서도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공간이자, 미사일과 무기 생산이라는 군사적 이미지로 덧씌워진 도시가 되었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모범'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받았던 강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무기 공장의 가동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일구어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일 것이다. 당국이 부여한 중압감을 털어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지켜온 강계 주민들의 노고가 온전히 보상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강계가 당국에 의해 강요된 정치·군사적 중압감을 벗어던지고, 남북을 잇는 교통과 교류의 거점이자 본연의 청정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칼럼 2

강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1. 들어가며

강계시는 자강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북한 북부의 대표적인 산간도시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강계시의 인구는 약 25만 2천 명이며, 면적은 약 264㎢에 이른다.[1] 북한의 도시를 연구한 라이너 도멜스(Rainer Dormels)는 강계를 인구 규모로 북한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중규모 도시로 분류하였다.[2] 강계의 인구는 1940년 약 2만 6천 명에서 1967년 1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증가를 이어가 2008년에는 약 25만 2천 명에 이르렀다.

〈표 1〉 강계시 인구 증가 추이 (1940~2008년, 단위 천명, *연평균성장률)

구분	1940	1967		1972		1982		1986		1991		2008	
	인구수	인구수	1940~1967*	인구수	1967~1972*	인구수	1972~1982*	인구수	1982~1986*	인구수	1986~1991*	인구수	1991~2008*
평양	286	827	4.0%	1,118	6.2%	1976	5.9%	2,274	3.6%	2,586	2.6%	3,255	1.4%
강계	26	170	7.2%	163	−0.8%	180	1.0%	211	4.1%	256	3.9%	252	−0.1%

출처: 이시효. "남북한 도시발전의 특징", In: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 보문당. 2024. 51쪽. 내용 부분 수정.

1) 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7: 자강도』. 평화문제연구소. 2004.

2) Rainer Dormels,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Seoul: Jimoondang, 2014), "Kanggye."



[그림 1] 강계시 위치와 행정구역 (진한색 도심지역) (출처: 필자 작성)

그러나 행정구역의 넓이만으로 강계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위성사진으로 바라보면 강계의 행정구역 대부분은 산지이고 실제 시가지는 그 가운데 비교적 좁은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 강계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와 계곡에 자리하며, 장자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이 도시를 가로지른다. 장자강과 남천·북천 주변의 좁은 평지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강계 특유의 길고 조밀한 도시 형태가 만들어졌다.[3)]

강계의 자연환경은 주민들의 생활과 도시의 성장에도 중요한 조건이 되어 왔다. 산지가 많은 데다 겨울 추위도 심하다. 강계의 연평균기온은 약 7℃이며 한겨울에는 월평균 기온이 영하 10℃ 아래로 내려간다.[4)] 이런 자연조건은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동시에 난방과 전력, 식량 생산과 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계가 북한에서 갖는 의미는 자연환경에만 있지 않다. 강계는 오래전부터 북부 내륙의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 정부가 평양에서 철수하면서 한동안 정부의 주요 기능이 옮겨온 곳이기도 하다.[5)] 이후 강계는 자강도의 행정 중심지이자 주요 산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특히 방직을 비롯한 경공업과 기계·에너지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북한의 국방산업과도 밀접한 도시로 알려져 왔다.[6)]

오늘날 강계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시기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이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 자강도에서는 강계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여 부족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이를 경제난을 스스로 극복하는 모범으로 내세웠고, 자강도의 경험을 전국이 따라 배워야 할 사례로 강조하였다.[7)]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강계정신'이다. 강계정신은 19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조한 대표적인 정치적 구호 가운데 하나였다. 1998년 처음 등장한 이 표현에는 지도자의 방침을 관철하는 정신과 함께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후 2000년에는 '강계정신'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정착하였다.[8)]



[그림 2] 강계 도심 지역 (출처: 필자 작성)

하지만 당시 강계 주민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강계정신'이라는 구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1993년과 2002년의 위성영상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만포-강계 지역에서는 9년 사이 농경지가 49.9% 증가하는 동안 산림 비율은 16% 감소하였다. 경작지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고도와 가파른 경사지까지 확대되었다.[9)]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경제난과 식량 부족을 견뎌야 했던 당시 주민들의 삶이 도시 주변의 산림과 토지에도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의 위기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북한 사회에는 시장이 확산되었고 주민들의 생계방식도 달라졌다. 홍민 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강계시 내 시장은 기존(2016년)부터 유지되어 온 연풍동 연풍시장(2,642㎡), 외룡동에서 남천동으로 이전확장된 남천동시장(10,360㎡, 구 외룡시장), 새로 건립된 독산동 독산시장(10,484㎡) 세 곳이 있다.[10)] 이에 이 글은 나름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때 '자력갱생의 도시'로 상징되었던 강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을까? 도시는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거나 쇠퇴했으며, 도시의 중심과 주변 지역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까?

3) Ibid.

4) 기상청, 『북한기상 30년보(1991~2020)』 (서울: 기상청, 2021). 기상청 자료는 북한지역의 1991~2020년 기후평년값을 수록하고 있다.

5) Dormels, North Korea's Cities, "Kanggye."

6) Ibid.

7) 박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는가?: 북한 자력갱생노선의 시련과 도전 그리고 재정립」,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2018), 227-254쪽.

8) 김은정, 「총서 ≪불멸의 향도≫ 『강계정신』에 나타난 고난의 일상화와 희생의 양상」, 『국제어문』 42집 (2008), 441-469쪽.

9) 이민부·김남신·최한성·신근하·강철성·한욱,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만포-강계 지역 경지확대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권 4호(2003), 481-492쪽.

10) 홍민, 차문석, 김혁. (2023).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보고서.

강계시는 북한 북부 내륙에 위치해 있어 도시 내부의 변화와 주민들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성자료와 강계 거주 경험자의 심층인터뷰를 함께 활용하여 도시공간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본다.

2. 연구를 위한 자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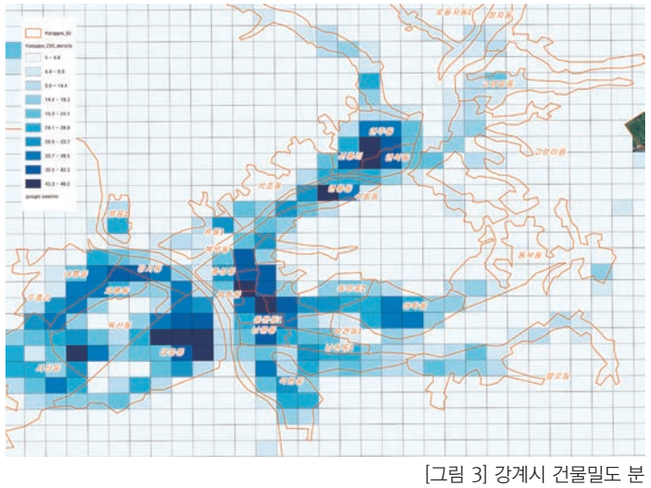
필자는 강계시의 공간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QGIS를 활용해 강계시 행정구역을 250m×250m 크기의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별 건물밀도와 야간조도 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강계시의 행정구역을 33개 '동' 단위로 구분하여 위성자료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도시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11] 건물자료는 GHSL(Global Human Settlement Layer)을 활용하여 2010년과 2025년의 건물밀도를 비교하였으며, 야간조도는 VIIRS(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자료를 이용해 2013년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강계의 현재 도시공간뿐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건물이 증가한 지역과 밤의 불빛이 변화한 지역을 비교하였다.

위성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강계의 과거 도시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강계 거주 경험자 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하였다.[12] 인터뷰 참여자는 남성으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 사이 대학생활을 포함해 약 7년 동안 강계에서 생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당시 강계의 도심과 주거지역, 대학과 주요 시설, 시장과 상업활동, 교통과 이동, 전력과 생활환경, 고난의 행군 전후 도시와 주민생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강계의 공간과 일상을 단정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문헌과 위성자료에서 확인되는 공간적 특징을 이해하고 당시 주민들이 경험한 도시생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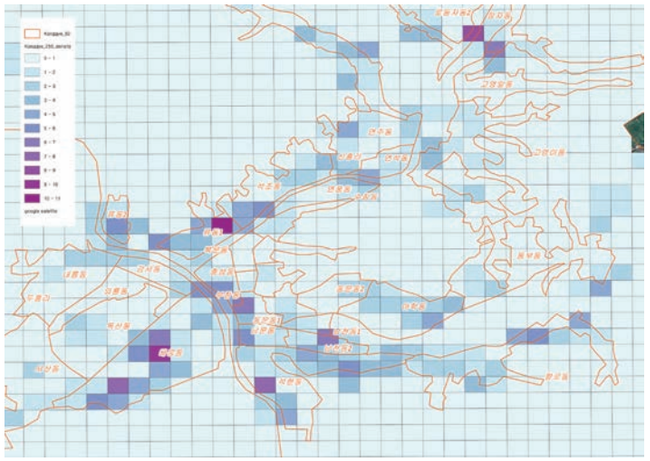
3. 강계시 도시 건물밀도 변화

2025년 강계시의 건물밀도를 250m 격자로 살펴보면, 시가지는 넓은 행정구역 전체에 고르게 형성되기보다 산과 하천 사이의 제한된 공간을 따라 밀집되어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남문동, 부창동을 비롯한 도심부와 장자강 남쪽 대응동, 내룡동, 외룡동, 강서동 일대, 북쪽으로는 연풍동, 신흥리, 역전동 일대까지 비교적 높은 건물 밀집도를 보인다. 반면 동부와 북동부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건물밀도가 빠르게 낮아진다. 이러한 분포는 산지가 많은 강계의 지형적 조건 속에서 도시가 하천과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림 3] 강계시 건물밀도 분포 (2025년 기준) (출처: 필자 작성)

2010년과 2025년의 건물밀도를 비교하면, 강계의 도시공간 변화는 시가지 전체에서 고르게 나타나기보다 일부 지역에 선택적으로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그림 4〉 참조). 비교적 큰 증가가 나타난 격자는 류동1·2, 대응동, 부창동 등 기존 시가지의 일부와 남천동, 석현동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며, 북부와 동부 외곽에서도 부분적인 증가가 나타난다. 반면 기존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던 도심의 상당 부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강계의 변화가 기존 도심 전체의 고밀도화보다는 특정 지역의 건물 신축이나 시가지의 부분적인 확장·재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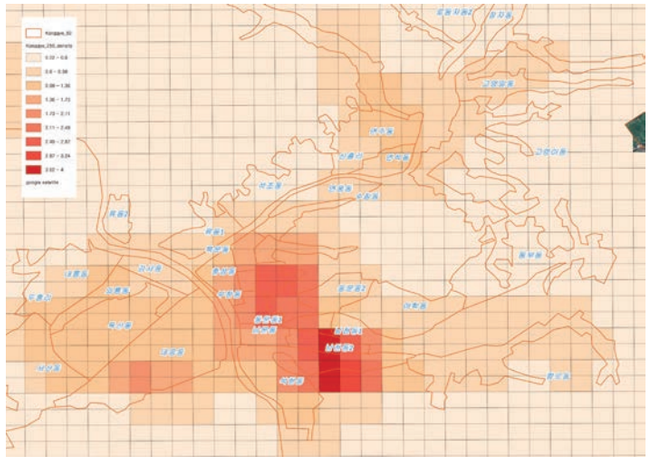
[그림 4] 강계시 건물밀도 증가 (2010~2025년) (출처: 필자 작성)

4. 야간 불빛으로 본 강계

2025년 야간조도 분포를 살펴보면, 강계의 야간 불빛은 도시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 도심 남부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그림 5〉 참조). 특히 남천동 일대에서 가장 높은 야간조도가 나타나며, 동문동,

11) 강계시 행정구역 면적은 263.667㎢이며, 34개 동, 2개 리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7: 자강도』 2004. (사)평화문제연구소). 필자는 강계시의 동별 행정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 지도와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행정경계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였다.

12) 강계시는 군수산업 지역으로 출입 통제가 심한 지역으로, 이 도시 이탈주민이 많지 않아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림 5] 강계시 야간조도 분포 (2025년 기준) (출처: 필자 작성)

남문동과 석현동 등 주변 지역으로 비교적 높은 조도가 이어진다. 반면 북쪽의 연주동 일대와 서쪽의 내룡동, 외룡동 등은 건물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음에도 야간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강계에서 건물이 밀집한 공간과 밤에 밝게 나타나는 공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야간조도는 전력 공급뿐 아니라 산업·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의 운영, 주민들의 야간활동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시설과 토지이용, 거주 경험자의 증언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건물밀도와 야간조도가 반드시 같은 공간적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물이 밀집한 기존 시가지 가운데에서도 야간 불빛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 있는 반면, 남천동 일대에서는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이는 건물의 물리적 밀집만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전력 이용 정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5. 강계시 공간과 일상의 변화

구체적인 도시공간 격차와 환경, 주민 일상을 확인하기 위해 강계시 출신 이탈주민 A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A의 증언에 따르면 강계시 중심은 장자강과 북천이 만나는, 김씨일가 동상이 있는 충성동, 만수동, 북문동, 부창동 일대이다. 강계시의 가장 주요한 산업은 군수산업으로 대부분 주민들은 군수산업 노동자들이다. 산간 도시에 군수산업이 발달한 것은 지하화되어있는 무기공장을 은폐하기에 적당한 지역이며, 만포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철도(만포선)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군수산업지역으로 강계시는 출입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며 이 지역 출신 이탈주민도 많지 않다(A).

A에 따르면 노동자 비율이 높은 강계시 주민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다. 산간지역으로 논이 거의 없어 대부분 옥수수나 감자가 주식이며, 배급도 넉넉하지 않다. '강계정신'이라는 것도 "군수 산업지대에서 배급도 못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A). 출입이 제한되어 다른 도시에 비해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한 배급에 의존해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강계는 허가한 배급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족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만 주니까 참 살기 힘들죠. (A와 인터뷰)"

A에 따르면 강계는 도시변화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돈주의 비율도 적다. 하지만 강계에도 돈을 축적한 사람들의 이동은 있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국가에 두세 채를 바치고 나머지는 돈 모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층으로 팔아먹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평수도 한 40평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짓죠. (A와 인터뷰)"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성영상을 확인해 보면 최근 도심 장자강 인근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 몇 채의 다층 건물들이 건설되고 있다.

[그림 6] 강계 도심 남쪽 남문동 강변 신축건물 (위성사진-위 2009년, 아래 2021년)



6. 나가며

위성자료와 거주경험자의 기억을 통해 살펴본 강계는 도시 전체가 빠르게 성장하기보다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도시였다.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강계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으며,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부족한 배급, 제한적인 시장활동 속에서 주민들의 삶도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도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도시에도 2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강계라는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북한의 한 도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강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내일을 기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칼럼 3

강계의 나무

장자강 뗏목에서 한반도형 이케아까지, 자강도 산림 자원사가 건네는 미래의 단서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대표· 국민대학교교양대학겸임교수)

프롤로그— 철의 도시에서 나무를 보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 압록강의 지류들과 낭림산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 시선을 두면, 자강도 강계(江界)가 나온다. 이 도시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유난히 차갑고 단단하다. 산속 깊이 파고든 군수공장, 기계 절삭유 냄새, '고난의 행군' 시기의 구호였던 강계정신,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 군사도시. 수십 년간 남한의 언론과 학계가 강계에 부여해 온 기호(sign)는 대체로 이 좁은 스펙트럼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념의 각주와 안보 프레임을 한 꺼풀 걷어내면, 강계는 전혀 다른 결로 숨쉬기 시작한다. 강계는 자작나무와 낙엽송, 잣나무가 빽빽한 산림의 요람이다. 그 나무를 베고, 물길로 나르고, 켜고, 다듬어 북한 주민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안방'을 채워온 목재 산업의 오랜 터전이다. 쇠를 깎아 무기를 만드는 공장의 담장 너머에는, 나뭇결을 다듬어 옷장과 찬장을 짜는 목수의 손이 함께 있었다.

강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포탄이 아니라 나무다. 이 글은 군사도시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강계의 목재 가공 기술사와 주민들의 소비 생활사를 따라가되, 그 서사가 어디서 굴절되고 어디서 멈춰 섰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자원과 기술은 언젠가 '한반도형 이케아'라 부를 만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

1. 강들의 경계, 나무가 모이는 곳



〈장자산 전경〉

강계라는 지명 자체가 이 도시의 성격을 설명한다. '강들의 경계'라는 뜻으로, 북천강과 남천강이 시내에서 합류해 큰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가 서북쪽으로 빠져나가 압록강에 합쳐진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여러 강이 모여든다는 입지 조건은 남한의 춘천이나 충주와 구조적으로 닮았다. 다만 해발고도와 위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강계 일대의 낭림산줄기와 적유령산줄기는 험준하고, 겨울 추위가 매섭고, 일교차가 크다. 이 혹독한 조건이 역설적으로 최상급 목재를 길러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더디게 자란 침엽수와 활엽수는 나이테가 촘촘하고 목질이 치밀하며 강도가 높다. 자작나무, 낙엽송, 잣나무, 분비나무는 가구재와 건축 마감재로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물성을 지닌다. 자강도가 북한 전체 수자원의 15퍼센트가량을 품고 있고, 유로 5킬로미터를 넘는 하천만 30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목재들이 어떻게 산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한다.

근대적 육상 교통망이 놓이기 전, 산 깊은 곳에서 베어낸 거대한 원목을 바깥으로 옮기는 유일한 통로는 물길이었다. 겨울에 벌채한 나무들은 봄에 얼음이 풀리고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를 기다려 강가에 집결했다. 벌목공과 뗏목꾼들은 원목을 밧줄과 칡덩굴로 엮어 거대한 뗏목을 만들었고, 여울을 헤치며 압록강 본류 쪽으로, 만포와 의주 방면으로 몰아갔다. 목숨을 건 노동이었다. 동시에 강계의 경제를 떠받친 가장 역동적인 풍경이기도 했다.

이 뗏목의 행렬은 하나의 역사적 장면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강계가 단순한 오지가 아니라, 내륙 산림 자원이 한반도 전역과 접속하는 유통의 결절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나무가 물을 타고 내려가는 그 경로를 따라, 강계는 일찍부터 '바깥'과 연결되어 있었다.

2. 이름의 정치학— 독로강에서 장자강으로

강계를 관통하는 이 강의 옛 이름은 독로강(禿魯江)이다. 고려 시대 기록에 이미 등장하는 오래된 지명으로, 1369년부터 이 일대를 '강계'라 부르기


〈강계시 중심을 흐르는 장자강〉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지도에서 이 강을 찾으면 독로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장자강(將子江)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이다.

개명의 표면적 이유는 어원이었다. '독로'가 여진족 말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로 정리 대상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로 붙인 이름의 출처를 따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자강은 강계 인근의 장자산(將子山)에서 따온 것인데, 장자산은 김정일이 한국전쟁 시기 피신했던 곳으로 알려져 혁명사적지로 관리되는 장소다. 실제로 강계에 있던 독로강공작기계공장 역시 장자강공작기계공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대목은 지명 연구의 각주로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지점이다. 북한에서 '장자'라는 어사(語辭)는 지리적 명칭이자 정치적 상징이며, 동시에 산업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뒤에서 살펴볼 가구 상표 '장자산' 역시 이 계보 위에 놓여 있다. 남한의 마케팅 연구에서 브랜드 네이밍은 대체로 소비자 인지와 차별화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북한에서 상표 이름은 그보다 먼저 체제 서사의 배치 문제다. 나무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나무로 만든 물건에 붙은 이름이 이미 정치의 문법으로 쓰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은 훗날 어떤 협력 모델을 구상하든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변수다.

3. 뗏목에서 만포선으로 –운송의 전환과 가공 거점화

물길의 시대는 철길의 시대로 이어졌다. 순천에서 만포까지 약 299킬로미터를 잇는 만포선이 희천과 전천을 거쳐 강계와 만포를 연결하면서, 자강도의 목재는 계절과 수량(水量)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뗏목이 봄철 해빙기에만 가능한 운송이었다면, 철도는 사계절 내내 정량적 물류를 가능하게 했다.

〈자강도 운봉호 뗏목 운반 모습〉



운송 수단의 변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불렀다. 20세기 중후반을 지나며 강계 일대의 목재 산업은 원목을 내보내는 배출지에서, 부가가치를 붙여 완성품을 내보내는 가공 거점으로 이동했다. 만포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대형 제재 설비가 들어서면서 1차 제재(원목을 판재와 각재로 켜는 작업)가 이루어졌고, 규격화된 목재는 공장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밀집한 강계 시내로 모였다. 강계는 그 목재를 가구와 건구(창틀·문틀), 건축 내장재로 완성해내는 최종 공정을 맡았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산업체 목록에도 강계목재가공공장이 등재되어 있다. 강계기계공장, 강계뜨락또르공장, 강계기와공장 같은 이름들 사이에 목재가공공장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도시의 산업 지도에서 나무가 차지한 자리를 보여준다. 군수와 기계공업의 도시로만 알려진 곳에서, 목재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4. 무기의 정밀함이 가구의 직각이 될 때

여기서 강계 특유의 기술 융합이 나타난다. 강계는 북한에서 공작기계, 금형, 금속 절삭 기술이 가장 집약된 도시 중 하나다.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 공정의CNC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북한 매체에 반복 등장했고, 산업용 로봇을 공작기계에 결합하는 시도까지 보도되었다. 강계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 인프라도 두텁게 깔려 있다.

군수와 기계공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 도시에 집중 투입된 자원— 고정밀 공작기계, 금형 설계 노하우, 건조와 압축 공정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공차(公差) 관리에 훈련된 인력— 은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접 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무기를 만들던 정밀함이 가구의 수평과 수직, 이음새의 아귀를 맞추는 목공 기술로 환류(loop back)한 것이다.

이 환류는 결과로 나타났다. 강계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은 다른 지방 공장 제품에 비해 오차가 적고, 틀어짐이 덜하며, 내구성이 확연히 낫다는 평가를 얻었다. 가구의 품질은 최종적으로 '문짝이 몇 년 뒤에도 제대로 닫히는가'라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으로 수렴하는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도시는 많지 않았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이 기술 환류는 계획된 산업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지리적 집적이 만들어낸 부수 효과에 가깝다. 같은 도시 안에 정밀 기계 인력과 목공 인력이 공존하고, 설비를 나눠 쓰고, 사람이 오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산업 클러스터 이론이 설명하는 지식 확산(knowledge spillover)이 폐쇄 경제 안에서도 작동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5. 안방의 사회사— 혼수, 가구, 그리고 이름



〈자강도 임업관리국이 생산하는 목재〉

북한 주민에게 가구는 생활도구가 아니다. 집안의 경제력과 격식,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가장 가시적인 자산이다. 특히 딸을 시집보낼 때 마련하는 혼수품(옷장, 이불장, 찬장)은 한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주택이 배정되고 소유권이 제한된 사회에서, 개인이 축적하고 과시할 수 있는 내구재의 목록은 짧다. 그 짧은 목록의 맨 앞자리를 가구가 차지했다.

북한 가구 시장에서 프리미엄의 위치를 오래 지켜온 상표로 알려진 것이 강계 생산 '장자산'이다. 탈북민 증언과 대북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평가는 대체로 일치한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나뭇결이 살아 있고, 오래 써도 문짝이 비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양의 고급 살림집이나 지방 상류층의 안방을 채운 것은 강계에서 올라온 가구였다는 이야기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브랜드 연구의 눈으로 보면 이 현상은 흥미롭다. 시장 경쟁이 제도적으로 억제된 사회에서도 소비자는 품질 신호를 식별하고, 그 신호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기업이 광고로 구축한 브랜드 자산이 아니라, 사용 경험이 구전으로 누적되어 형성된 브랜드 자산이다. 오히려 정보가 통제되고 광고가 없는 환경이기에, 입소문의 신뢰도와 지속성은 더 높았을 수 있다.

동시에 앞서 확인한 사실을 겹쳐놓아야 한다. '장자산'이라는 이름은 김정일 혁명사적지와 연결된 지명에서 온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품질의 표지이지만, 체제에는 상징의 확산 경로다. 하나의 기표가 두 개의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이 이중성은 이 브랜드의 강점이자, 향후 대외적으로 활용할 때의 가장 까다로운 제약이 된다.

6. 골조식에서 판식으로— 결핍이 낳은 공정 혁신

강계 가구 산업의 전개에서 가장 주목할 기술적 전환은 골조식 가구에서 판식 가구로의 이행이다.

골조식 가구는 두꺼운 원목으로 뼈대를 짜고 판자를 끼워 넣는 전통 방식이다. 튼튼하고 수명이 길지만 목재 소모량이 많고 무겁다. 무엇보다 숙련 목수의 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규격화에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판식 가구는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고온·고압으로 압축한 파티클보드와 MDF, 합판 표면에 무늬 마감재를 입혀 만든다. 자재를 절약하고, 무게를 줄이고, 치수를 표준화할 수 있다.



〈강계목재가공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습〉

강계의 공장들이 판식 공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배경에는 두 가지 압력이 있었다. 하나는 산림 자원을 아끼라는 정책적 요구였다. 다른 하나는 전국에 공급되는 신축 살림집의 규격화된 공간을 채울 가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였다. 결핍이 공정 혁신을 밀어붙인 셈이다.

이 전환의 함의는 생각보다 크다. 판식 가구 공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곧 규격화된 부재(部材)를 반복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뜻이고, 그것은 모듈화와 조립식 가구로 나아가는 기술적 발판이 된다. 목재 가공 기술의 진화를 골조식 → 판식 → 모듈·조립식의 3단계로 놓고 본다면, 강계는 이미 2단계를 통과해 3단계의 입구에 서 있다. 이 관찰이 다음 장의 비교로 이어진다.

7. 알름훌트와 강계— 평행이론과 그 균열

이케아의 탄생지인 스웨덴 남부의 소도시 알름훌트(Älmhult)와 자강도 강계는 놀라울 만큼 닮은 산업 지리적 조건을 공유한다.

구분	알름훌트(이케아의 요람)	강계(한반도 내륙 목재 거점)
지리 조건	숲 외에는 별다른 자원이 없던 벽지	험준한 산악 분지, 고립된 내륙 도시
산업 출발	산림 자원 기반 소규모 목공·가구 생산	뗏목 유통과 1·2차 목재 가공
핵심 제약	벽지의 높은 운송비, 저가 대량 공급 과제	산림 고갈 방지, 자원 절약형 대량 생산 과제
기술적 해법	플랫팩(flat-pack) 조립식 판식 가구	판식 공정 도입과 규격 모듈화
브랜드 결과	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 IKEA	북한 내 프리미엄 가구 '장자산'

잉바르 캄프라드가 알름훌트의 숲과 벽지라는 한계를 납작한 포장과 모듈형 조립이라는 발상으로 뒤집었듯, 강계 역시 험한 지형과 자원 제약 속에서 판식 공정과 정밀 목공 기술을 축적했다. 두 도시 모두 '오지 산림 자원의 기술적 고도화'라는 동일한 공식을 밟았다.

그러나 이 평행이론은 결정적인 지점에서 갈라진다. 비유를 끝까지 밀어붙이

기보다, 어디서 균열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는 편이 훨씬 유용하다.

첫째, 수요의 성격이 다르다. 이케아의 플랫팩은 소비자가 직접 차에 싣고 가서 조립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자가용 보급, 교외 대형 매장, 소비자의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이 함께 있어야 작동하는 모델이다. 북한에는 그 전제가 없다. 강계의 판식 가구는 유통 혁신이 아니라 자재 절약의 결과로 도착한 것이고, 두 경로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지향이 다르다.

둘째, 디자인의 위치가 다르다. 이케아는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 가격에 맞춰 디자인과 소재를 역산하는 회사다. 디자인이 원가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다. 계획경제에서 디자인은 생산 계획이 확정된 뒤에 표면을 다듬는 마감 공정에 가깝다. 순서가 반대다.

셋째, 산림의 상태가 다르다. 자강도가 상대적으로 산림이 남아 있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전반의 산림 황폐화는 오래된 문제다. 최근에도 지방공업공장 개건·보수를 위해 벌채가 허용되고 있고, 이를 두고 당국이 산림 황폐화를 조장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전해진다. 목재 산업의 미래를 말하려면 이 이야기부터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전제로 출발하는 모든 구상은 쉽게 허구가 된다.

넷째, 브랜드의 소유가 다르다. '장자산'은 정치적 지명에서 온 이름이다. 이 이름을 그대로 국제 시장에 들고 나가는 일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이 네 가지 균열을 인정하고 나면, 비유는 오히려 더 쓸모 있어진다. 강계가 이케아가 될 수 있다는 낙관이 아니라, 강계가 이케아의 경로를 밟으려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를 목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8. 한반도형 이케아 — 조건부 구상

언젠가 한반도의 물류와 자원 교류가 재개되는 국면이 온다면, 강계의 목재 산업은 남북 상생을 실증할 수 있는 드문 후보군에 속한다. 무기나 광물과 달리 가구는 민생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성과가 거실과 안방에서 눈에 보이며,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앞 장의 균열을 메우는 순서로 구상해야 한다.

1단계— 산림의 순환 체계부터. 가구 공장을 짓는 일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은 벌채와 조림의 균형을 되돌리는 일이다. 남한이 축적해온 산림 경영 기술과 FSC 등 국제 인증 체계를 이식해, 벤 자리에 다시 심는 순환형 임업 생태계를 세운다. 이 단계 없이 생산량부터 늘리면, 20년 뒤 강계에는 공장은 있고 나무는 없는 상태가 된다. 동시에 이 단계는 훗날 '친환경 산림에서 온 목재'라는 서사의 근거가 되어준다. 지속가능성은 나중에 붙이는 마케팅 수사가 아니라, 맨 처음에 깔아야 하는 공정의 일부다.

2단계— 모듈·표준화와 설계 역량의 결합. 강계가 축적한 판식 가공 기술과 정밀 목공 역량 위에, 남한의 CMF(색·소재·마감) 설계, 인체공학적 치수 체계, 품질 검증 표준, 공정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다. 핵심은 설비 이전이 아니라 설계 방법론의 이전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케아의 본질은 납작한 상자가 아니라 '가격에서 역산하는 설계'라는 사고 순서에 있다. 플랫팩 부재 생산 체계를 강계 목재 가공 단지에 이식하는 일은 물류비 절감을 넘어, 그 사고 순서를 함께 들여오는 작업이어야 한다.

3단계— 브랜드의 재설계. 마지막 단계는 이름의 문제다. 강계의 청정 산림, 정밀 목공 기술, 현대적 설계 감각을 결합한 한반도 고유의 홈퍼니싱 브랜드를 세운다. 이때 기존 상표를 그대로 쓰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명이 지닌 정치적 계보를 국제 시장이 어떻게 읽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계라는 장소성 자체, 즉 '한반도 내륙 깊은 곳의 혹독한 기후가 길러낸 목재'라는 물성의 서사로 브랜드를 다시 짜는 편이 낫다. 남한 기업의 하청 기지가 아니라, 지역 유산을 자산으로 삼은 공동 브랜드여야 지속 가능하다.

세 단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다. 강계를 값싼 생산 기지로 취급하는 순간 이 구상은 실패한다. 이케아가 알름훌트에 본사와 박물관을 남겨둔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의 신뢰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감추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

에필로그— 나무의 서사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도시를 정치적 선언문이나 군사적 위협의 문법으로만 읽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 독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강계의 깊은 숲에서 더디게 자란 자작나무와 낙엽송, 여울을 타고 흐르던 뗏목의 행렬, 무기를 깎던 정밀함이 가구의 직각으로 옮겨 가던 공장의 시간, 딸의 혼수로 옷장을 마련하며 문짝이 틀어지지 않는 상표를 찾아다닌 어느 어머니의 하루. 이 장면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혹독한 자연과 자원의 한계를 기술로 감당하고, 정밀함을 고집하고, 삶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채우려 애써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스웨덴의 작은 벽지 마을 알름훌트의 숲에서 세계인의 일상을 바꾼 기업이 태어났다. 그것이 강계에서도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조건은 다르고, 균열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나무를 심는 일보다 베는 일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의 씨앗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강계의 공장에서 다듬어지던 나뭇결 속에는 이미 축적된 기술과 이름값과 사람의 손이 남아 있다.

차가운 철의 그늘을 잠시 걷어내고 강계의 숲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한반도 미래 산업이 딛고 설 수 있는 하나의 지반을 발견하게 된다. 장자강의 물길을 따라 흐르던 어제의 원목이, 언젠가 세계인의 거실을 채우는 나무의 서사로 다시 쓰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칼럼 4

강계의 교회를 찾아서[1)]

1. 들어가며

강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상대적으로 잘 견뎌낸 곳으로 알려지며,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강계정신'[2)]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강변7읍(江邊七邑)'[3)]에 속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평안북도 동북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서간도와 마주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근대에 들어서는 국내 선교와 만주 한인 사회를 향한 선교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었다.

1908년 선교지부가 설립된 이후 초산·위원·자성·후창 등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순회 사역은 이후 만주 흥경 연합선교부[4)]와 남만노회[5)]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1917년 평북노회에서 분립한 산서노회가 바로 강계읍교회에서 창립되면서, 강계는 평안북도 산간지역 장로교의 행정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계례지병원과 영실학교·명신학교·광신

1) 「북한기독교역사사전」을 1차 자료로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강계정신'(정확히는 '강계의 혁명정신')이라는 표현은 1998년 김정일이 자강도를 현지지도한 것을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때 함께 나온 유명한 구호가 있다. "강선(降仙)의 정신과 강계(江界)의 혁명정신으로 일어날 때 조국은 위대한 강성대국으로 만방에 위력을 떨칠 것이다."

3) 압록강 강변에 자리한 일곱 개 고을(읍)을 가리키는 말로, 조선시대 평안도에서 압록강을 따라 배치된 국경 방어 요충지 일곱 곳을 하나로 묶어 부르던 명칭이다. 해당하는 고을은 강계·위원·초산(이산)·벽동·창성·삭주·의주이다.

4) 현재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 신빈 만주족 자치현 서부에 있는 지명으로,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근거지였던 곳이다. 1917년에 미국북장로회가 '흥경선교부'를 개설했고, 같은 해 '흥경성경학교'도 설립하였다.

5) 1921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남만주(서간도 일대) 지역에 조직한 노회로 '남만주(南滿洲)를 관할하는 노회'라는 뜻이며, 압록강을 건너 유하현·통화현·환인현 등 서간도 일대에 형성된 한인 이주민 교회들을 관장했다.

여학교, 남녀 성경학원 등이 잇달아 세워지면서 의료·교육 선교가 복음 전도와 함께 뿌리내렸고, 이는 지역 지도자 양성으로 이어져 노회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1919년 강계기독교청년회가 이 지역 3·1운동[6]의 중심축이 되면서 강계 교회는 신앙공동체를 넘어 민족운동의 거점으로도 기능했다.

하지만 산서노회는 해방 이후 남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1952년 총회에서도 재건되지 못했는데, 이는 강계를 비롯한 북한 지역 장로교 역사가 분단으로 단절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이렇듯 강계는 국경을 넘나든 선교 거점이자 독자 노회의 발상지, 의료·교육 선교의 결합 사례, 그리고 분단으로 끊어진 북한 교회사의 상징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2. 복음의 전래

미북장로회 한국선교회는 1892년 원산에 첫 선교부를 연 이래 점차 사역 범위를 넓혀갔다. 평양(1893)을 시작으로 선천(1901), 재령(1905~1906), 강계(1908)에 잇달아 선교부가 들어섰고, 1921년에는 만주 흥경(興京)까지 거점이 확대되었다. 선교 지역은 담당자별로 구분해 관리했다. 평안남도 북부는 마펫(S.A. Moffett, 마포삼열)이, 평안남도 동부·서부는 베어드(W.M. Baird, 배위량)가, 강계를 포함한 평안북도 일대는 휘트모어(N.C. Whitemore, 위대모)[7]가 맡았다.



〈휘트모어(N.C. Whitemore, 위대모), 1901〉

선천선교부는 처음 문을 열면서 관할 지역을 일곱 개 순회 구역으로 나누었다. 선천·구성, 선천 동부, 용천·철산, 서의주, 동의주, 삭주·창성·벽동, 그리고 초산·위원·강계·자성·후창이 그것이었다. 이 중 마지막 구역인 초산·위원·강계·자성·후창은 휘트모어와 한득룡이 함께 책임졌으며, 강계선교부가 이들 다섯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1910년대 무렵 이 일대에는 교회 약 25곳, 교인 약 2천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블레어(H.E. Blair, 방혜법)[8], 밀즈(R.G. Mills, 마일서)[9], 로즈(H.A. Rhodes, 노해리)[10] 등의 선교사가 사역을 담당했다.

강계에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시점은 1880~1885년 사이로 추정된다. 만주로부터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이 산악지대 주민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존 로스(John Ross)가 번역한 조선어 성경이 권서인들을 통해 강계까지 보급되었다. 이후 1889년, 언더우드 부부가 신혼여행 중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언더우드 부인은 "우리는 이곳에서 매우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했다.[11]

강계에 기독교가 처음 뿌리내린 시기는 대략 1899년 무렵으로 전해진다. 1900년에는 의주에서 활동하던 조사 김관근(金灌根)[12]이 강계를 찾아 17세된 이학면(李學勉)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다. 이로써 그는 공식적으로 강계의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01년 12월에는 렉크(C.G. Leck, 나초주)와 휘트모어가 함께 강계 지역을 둘러보았고, 이 방문을 계기로 평안북도 일대의 전도 체계가 한층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강계·위원·초산·구성 지역은 최봉석이, 창성·후창 지역은 유상도가 각각 조사로 맡아 본격적인 전도 활동과 교회 설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02년 가을, 휘트모어 선교사는 43일간 강계 지방을 순회했다. 강계읍에서는 5일에 걸쳐 사경회를 인도했으며, 여기에 3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계 최초의 신자로 알려진 이학면이 세례를 받았고, 13명이 새로 학습교인으로 등록되었다.

1903년 봄에는 로스(C. Ross, 노세영)가 강계를 방문하여 5일간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이 시기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교회

---

6) 1919년 10월 제8회 총회 기록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산서노회 소속 신자 중 사망자 5명, 복역자 10명, 보석자 3명, 태형을 받은 자 55명, 구류된 자 70명에 이르렀다.

7)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로, 1896년 내한해 평안북도 개척 선교를 자원했다. 1897년 선천읍교회를 개척하고 신성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으며, 1902년과 1912년에는 강계·만주 지역을 답사해 이후 호프만 등이 이어받은 강계 선교의 기초를 놓았다. 1912년 평북노회, 1918년 의산노회의 초대 노회장을 지내는 등 평안북도 지역 장로교 조직에도 크게 기여했다.

8)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로, 강계 지역 초기 교육 선교의 기틀을 놓은 인물이다. 그는 1908년 강계선교부가 세운 3년제 중등교육기관인 영실중학교의 초대 교장을 맡아 1913년까지 학교를 이끌었다. 같은 시기 강계읍교회 부속 여성 교육기관인 광신여학교에서도 초대 교장으로 시무하며 여성 교육의 토대를 닦았다. 또한 어뢰면 풍청동(수명동)에 있던 수명학교에서도 교장으로 재직하여, 강계 산간 지역까지 교육 선교의 범위를 넓혔다. 교육 사역 외에도 산서노회 산하 교역자 양성 기관인 파철성경학교(강계성경학교)에서 교사로 참여하여 1917년 개교 초기부터 목회자와 조사들을 길러내는 일에 힘을 보탰다. 이후 1937~1938년에도 다시 파철성경학교 강사로 초청되어 종교강화회를 인도하는 등 강계 지역 교역자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9) 미국북장로회 선교사이자 의사, 교육자이다. 1909년 5월 강계읍으로 이주해 서양 의료를 처음 도입한 선교사다. 초기에는 창고를 개조한 진료소에서 진료를 시작했으나, 1910년 케네디 부부의 후원으로 병원 건물이 세워져 1912년 '계례지병원'으로 정식 개원했다. 환자 수는 빠르게 늘어 1911년 약 5천 명에 이르렀다. 1911년 셰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옮기며 강계를 떠났지만, 그가 놓은 기초 위에서 병원은 이후 비거·바이램 등을 거쳐 계속 성장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계 의료선교의 출발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0) 강계 지역 초기 교회 개척과 성장을 이끈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다. 1911년 강계교회가 지도자 갈등으로 분열을 겪은 뒤 블레어와 함께 교회를 재정비했고, 1912년에는 호프만과 함께 사경회를 열어 만주에서 건너온 교인들까지 포함해 수백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며 강계교회가 세례교인 300여 명을 얻어 주일 출석 800명에 이르는 급성장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1913년에는 휘트모어·호프만과 함께 서간도 지역을 순회하고 봉천·요양·개원 일대 선교부와 협의하여, 이후 만주 흥경 연합선교부(1919)와 남만노회(1921)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밖에 홍주동교회 초기 담임자로 활동하고, 인가해교회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는 등 강계 인근 여러 마을 교회 설립에도 기여했다.

11)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 317

12)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가 발족할 때 평안소회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여러 교회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1910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이후 의주군 관리, 위원면 중단동·삼화, 의주군 천마·연평교회 등에서 시무하였다. 또한 이 가문에서는 총 17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블레어 (H.E.Blair 방혜법), 1913〉

는 밤중에 두 차례 돌팔매질을 당했고, 한 번은 뒤편 담장에 불이 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13] 그만큼 강계가 기독교에 배타적인 지역임을 예상할 수 있다.

1904년 가을에 한국에 도착한 블레어(H.E. Blair, 방혜법)는 선천에서 강계로 배정받아 1909년 강계 선교부가 개설될 때까지 혼자 북쪽지방을 감당했다. 같은 시기에 로스와 샤록스(A.M. Sharrocks, 사락수)는 캐나다 토론토 여자기도단(Toronto Ladies)이 후원한 자금으로 강계읍의 건물 한 채를 사들여 '알렉산더 휴식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건물은 선교사들의 임시숙소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여학교와 주일학교 장소로 이용하였다. 샤록스 박사는 11월 18일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강계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화자가 그곳을 떠날 무렵, 로스는 열흘 넘게 8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으며, 세례 심사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학습교인 지원자는 40명을 넘어선 상태였다."[14]

1908년 강계읍에 미북장로회 선교지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교세는 빠르게 커져갔다. 산서노회가 성장하는 데는 의료선교와 교육선교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1909년 5월 의사 밀즈(R.G. Mills, 마일서)가 강계읍으로 옮겨와 계례지병원을 세우면서 의료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아울러 1908년 문을 연 중등교육기관인 영실학교, 명신학교, 광신여학교는 이 지역에 기독교 교육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몫을 했다.

1910년 봄, 선천에서 활동하던 여성 선교사 제인 사무엘(Jane Samuel)이 강계에서 개최한 여자사경회에는 약 200명의 여성이 모였다. 이 가운데 14명은 과거 강계를 방문했던 언더우드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한 여성은 당시 언더우드 부인으로부터 마가복음 한 권을 건네받았으나, 이후 11년 동안 이를 읽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훗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15]

1913년 가을 강계읍에 설립된 여자 성경학원과 1914년 3월 세워진 남자 성경학원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기관은 산서노회 관할 지역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갔다.

산서노회는 강계 지역 장로교회들이 속한 노회로, 1916년 제5회 장로교 총회 결의를 거쳐 1917년 2월 평북노회에서 갈라져 나와 세워졌다. 창립 노회는 그해 2월 13일 평북 강계읍교회(남장대교회)에서 열렸고, 목사 7명과 장로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호프만(C.S. Hoffman, 함가륜)[16]이 초대 노회장으로 뽑혔다. 관할 구역은 세 시찰로 나뉘었다. 평북 강계·자성·후창과 평남 장진 일대는 동구역, 평북 초산·위원 일대는 서구역, 서간도의 임강·집안·회인·통화·류하·해룡·홍경·동평 일대는 북구역으로 각각 편성되었다.[17]



〈1897년 8월 한국 선교지를 방문한 미북장로회 선교사들, 사진=평양대부흥〉

창립 당시 규모를 보면 조직 교회 11곳, 미조직 교회 114곳, 기도처 102곳이 있었고, 선교사 3명과 한국인 목사 7명, 장로 18명이 함께했다. 여기에 전도사·권서 6명, 남자 조사 9명, 여자 조사 6명, 여자 전도인 1명, 영수 84명이 더해져 사역을 이끌었으며, 세례교인·학습교인·원입교인을 합쳐 전체 교인은 약 7,694명에 달했다. 1921년 4월에는 서간도 지역인 북구역이 남만노회로 분립했다.

해방 직전인 1942년 통계에 따르면 조직 교회 36곳, 미조직 교회 61곳, 기도소 97곳이 있었고, 목사 14명, 장로 62명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가 활동했으며, 전체 교인 수는 5,968명이었다. 이후 1952년 4월 제37회 총회에서 월남한 북한 지역 10개 노회[18]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산서노회는 그 과정에서 다시 세워지지 못했다.

3. 강계의 교회들

평안북도 지역의 교세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1908년 강계에 새로운 선교지부가 설치되었다.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초기에는 선교 활동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초기 선교는 만주와 의주를 경유하여 복음이 전해졌으며, 행정적으로는 선천 선교지부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다. 하지

13)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 319
14) 위 같은 책, p. 320
15) 위 같은 책, p. 317

16) 미국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10년 한국에 들어와 평양선교부에서 사역을 시작한 뒤 이듬해 강계선교부로 옮겨 약 12년간 남장대교회와 명신학교, 영실중학교 등에서 목회와 교육에 힘썼다. 압록강 건너 서간도 지역까지 순회하며 한인 교회를 돌본 결과 이후 만주에 연합선교부와 남만노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을 마련했고, 1917년에는 산서노회 초대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18년 말에는 강계기독교청년회 조직을 도왔는데, 이 단체가 이듬해 강계 지역 3·1운동의 중심이 되면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아 한때 귀국하기도 했다. 1924년에는 선천으로 임지를 옮겨 신성중학교 교장을 지내며 학교 기틀을 다졌고, 이후에는 평교사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의주·용천 등 산간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목회와 의료선교를 병행했다. 부인 캐서린 데이비스 역시 여자성경학원과 여전도회 등을 통해 여성 사역에 힘썼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까지 선천에 남아 선교부 재산과 교회를 지키다 귀국했으며, 1952년 은퇴한 후 1978년 95세로 별세했다.
17) 유관지, "자강도:산서노회의 도", 기독교사상 (2017년 11월호)
18) 평양노회, 평북노회, 안주노회, 평동노회, 용천노회, 황해노회, 황동노회, 평서노회, 함남노회, 함북노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및 「북한기독교역사사전」(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자료를 바탕으로 구글맵에 필자 편집〉

만 선천과의 거리가 멀어 내륙 지역 선교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별도의 선교 거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교지부가 설립될 당시 강계읍은 약 1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평안북도 내에서 의주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또한 당시 강계 선교지부 관할 지역에는 25개의 예배당이 있었고, 약 2천 명의 주민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 이후 교세는 빠르게 성장하여, 강계는 평안북도에서 선천에 이어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9]

1949년 12월 행정구역 개편 이전, 강계군에는 약 90개의 교회가 존재하였다. 오늘날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 강계시에는 장로교회 14개와 일본조합교회 1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0]

1) 강계읍교회

강계읍교회는 1900년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읍내면 동부동에 세워진 장로교회로, 동문안교회·동문내교회·동문동교회·남장대교회·강계읍동문내교회·강계읍남교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강계 출신 김윤붕(金潤鵬)은 1899년 평양에서 처음 복음을 접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평북 지역에서 조사로 활동하던 김관근(金觀根)이 1900년경 강계를 찾아 이학면(李學勉)·김태희(金泰羲)·김관흥(金觀弘)·이자화(李子化) 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해 10월 김관흥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

19)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79.

20) 위 같은 책, pp. 517~604을 근거로 행정구역 개편을 고려한 수치임

1901년에는 레크(G. Leck, 라초)[21]와 양전백(梁甸伯)[22]이 강계를 찾아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학면을 집사로 세웠다. 이듬해 평북도사경회에서는 강제근(姜濟根)의 전도로 약 80명이 새로 교인이 되었다. 이후 차학연(車學淵)과 이학면이 힘을 모아 전도한 결과 교인 수가 30명가량으로 늘었고, 동문안의 작은 가옥을 사들여 예배를 드리다가 1904년 예배당을 세우면서 정식으로 교회의 틀을 갖추었다. 이후로는 블레어(H.E. Blair, 방혜법)와 로즈(H.A. Rhodes, 노해리)가 교회를 이끌었다.



〈강계읍교회 전경〉

1907~1908년 겨울, 방혜법의 형제 방위량(W. N. Blair, 블레어)이 함께 강계에 머물며 대규모 겨울 사경회를 인도했다. 이 시기는 한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때와 맞물려 있었다. 강계읍교회는 크게 성장하여 교인 수가 700명에 달했고, 주변 지역을 합하면 2천 명이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사경회 기간에는 강계읍내에 세울 새 예배당을 위해 350달러의 헌금이 약정되었다.[23]



〈블레어 (W.E.Blair 방위량), 1913〉

강계읍교회의 역사는 1910년 강계읍 남장대 앞에 부지를 마련해 60칸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5월 헌당식을 거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차학연을 장로로 장립해 당회를 조직했고, 이로 인해 교회는 '남장대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1911년 2월에는 재령의 헌트, 선천의 양전백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 대사경회가 열려 약 300명이 매일 성경을 공부했고, 이 기간 약 300명의 새 신자와 500여 원의 건축 헌금이 모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같은 해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다. 초기 교인 이학면과 조사 차학연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고, 중재 끝에 이학면은 위원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이후 교인 135명이 차학연의 사역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차학연은 약 50명의 교인과 함께 교회를 떠나 별도로 '자유교회(조선회중기독

21) 1901년 선천선교부 설립 초창기 멤버로 파송된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다. 같은 해 양전백 목사와 함께 강계를 방문해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학면을 집사로 세웠으며, 12월에는 휘트모어와 함께 다시 강계를 찾아 평북 지역 전도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계·위원·초산·구성 등지에 조사가 임명되고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계읍교회가 정식 조직을 갖춰가는 초기 디딤돌 역할을 한 선교사로 볼 수 있다.

22) 1896년 휘트모어의 조사가 되어 선천을 거점으로 강계를 포함한 평안북도 각지를 순회하며 전도한 초기 목회자다. 1901년에는 레크와 함께 강계를 방문해 세례를 베풀고 이학면을 집사로 세웠으며, 1907년 한국 최초 7인 목사 중 한 명으로 안수받은 뒤 평북·서간도 지역 순행목사로도 활동했다. 1911년에는 강계읍교회 대사경회 강사로 참여해 300여 명의 새 신자를 얻는 성과에 기여했다.

23)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 320

교)'를 설립했으며, 장로교에서 면직된 최중진 목사와 협력하며 기존 장로교회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진통을 딛고 교회는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13년 10월 다시 당회를 조직했고, 1914년 4월 김진근 목사가 부임해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었다. 그는 강계읍교회 첫 번째 한국인 목사이다. 이 시기 교인들의 헌신적인 신앙과 헌금 사례도 눈에 띈다. 김신순은 모친을 극진히 봉양하며 신앙의 본을 보였고, 김도현·김항순·김도선·박명신 등은 논과 재산을 교회에 기부했다.

1919년에는 최봉석의 후임으로 김대건 목사가 부임했으며, 같은 해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강계에서도 4월 8일 이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한봉민, 정준, 김경하, 명운행 등 교회 지도자들이 시위를 주도했고, 그 결과 여러 명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현장에서 순국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이후 일제는 교회 종의 타종을 금지시켰다.

1920년대에는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1922년경 교인 수는 300~400명에서 800~900명으로 늘었고, 영실중학교·광신여학교·명신학교가 함께 운영되며 교육 선교도 확대되었다. 1923년에는 한봉민 등이 장로로 장립되었고, 1924년 함석용 목사가 부임해 위임식을 가졌다. 이 시기 남전도회와 부인전도회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전도인을 파송해 새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했고, 곽상언·주문언·김순일 등 교인들의 헌신적인 신앙 사례도 이어졌다.

1926년에는 선교사 부인의 후원으로 명신유치원이 개원했고, 아동 성경학교와 부인 국문강습 등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었다. 같은 해 교인들은 담임목사 함석용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갚아주는 등 공동체적 유대를 보여주었다.

1927년에는 기독청년면려회가 재정비되었고, 영생주일학교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400여 명의 학생과 50여 명의 교사를 갖춘 규모로 성장했다. 10월에는 부흥대사경회가 열려 매일 400명가량이 참석했으며, 교인 양지현은 어려운 형편에도 상당한 헌금을 드리는 등 헌신이 이어졌다.

1929년 김련 목사가 위임되면서 교회는 약 10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1933년 창립 33주년 기념예배에서는 25년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온 37명의 교인이 표창을 받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1898~1900년경부터 강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교회 설립 이전부터 이어진 신앙의 뿌리를 보여준다. 같은 해 부흥회를 통해 200여 명이 새로 입교했고, 북쪽 지역에 가옥을 매입해 북교회당 설립을 준비했으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기성회 적립금도 4천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안정되었다.

1934~1935년에는 부인전도회가 이서면 등지에 전도인을 파송해 마상동에 새 교회를 세우는 등 개척 사역이 계속되었고, 청소년·청년면려회, 성경학교, 희년 기념식 등 다양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성전기성회를 통한 증축 준비, 강계여자성경학교 졸업생 배출, 원로 장로들의 근속·회갑 기념식 등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1935년에는 강계기독소년금주군이 제1회 소년운동대회(야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계읍 교인들, 사진=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936년 노회의 승인으로 교회는 남·북으로 분립되었고, 김련 목사가 두 교회를 함께 담당했다. 이후 1937년 남·북교회 연합 사경 야학회가 열렸으나, 1938년 김련 목사가 사임하면서 그의 10년 사역을 기념하는 송별회가 열렸다. 이후 1939년 고려위 목사, 1942년 김해희섭 목사가 차례로 부임해 사역을 이어가며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교회에 간증 사례도 있다. 강계읍교회 교인 주화석은 1910년 무렵 신앙을 가진 지 약 4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부친 주문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장자가 조상 제사를 잇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은 관계를 끊겠다고까지 하며 그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주화석은 흔들리지 않고 부친을 위해 꾸준히 기도를 이어갔고, 시간이 흐른 뒤 부친 역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신앙을 가진 지 2~3년쯤 지났을 무렵, 부친은 그동안 아내를 소홀히 대하고 소실과 2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삶을 죄로 여기며 깊이 뉘우쳤다. 그는 본처를 직접 찾아가 눈물로 잘못을 빌었고, 소실과의 관계도 정리했다.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을 때 주화석은 별다른 직분이 없었음에도 돌과 목재를 나르는 일에 앞장서 참여했다. 이런 헌신에 힘입어 수십 칸 규모의 예배당이 반년 만에 완공될 수 있었다. 1933년 11월 19일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는 강계읍에서 25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온 교인 37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주화석도 약 29년의 신앙 경력으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4)]

2) 강계북교회

강계읍북교회는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서부동에 세워진 장로교회로, 1933년 9월 포교소 설치 신고를 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936년 노회 승인에 따라 강계읍교회가 남·북으로 분립되면서 세워졌으며, 초기에는 남교회 김련 목사가 겸임하다가 1937년 김창욱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다.

24) 북한기독교사전편찬위원회, 「북한기독교역사사전(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p. 2110


〈바이램(R.M. Byram, 배의남)〉

1934~1935년에는 바이램(R.M. Byram, 배의남)[25] 선교사의 지원 아래 전도인들이 활동했고, 소녀면려회 등 여러 조직이 자리를 잡아갔다. 1937년경에는 교인 수가 약 1천 명에 이르러 산서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명신학교·광신유치원·명실고등학교와 남녀전도회, 청년면려회, 금주·금연 운동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을 갖추었다.

같은 해 말에는 남·북교회 연합 사경 야학회, 여자 야학회, 성경연구회, 웅변·토론대회 등이 활발히 열렸다. 1938년에는 주일학교 졸업식, 소년금주군의 금주·금연 캠페인 및 창립 5주년 기념식, 부활주일 동화대회, 하기 아동성경학교(참석 아동 약 170명, 새신자 12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이 시기 교인 김인순이 별세하며 금단추를 헌납하는 등 헌신 사례도 있었다.

1940년에는 약 2만 원 예산으로 예배당 신축을 추진 중이었으며, 이후 해방과 6·25전쟁 시기까지 김창욱 목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었다.

3) 그 외 장로교회들

당시 강계군 일대에는 여러 마을 단위로 작은 장로교회들이 잇달아 세워졌으며, 대부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전도와 헌신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곳은 1905년 공북면 공인동 인가해에 설립된 인가해교회로, 김운기의 인도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915년까지는 교인이 약 40명에 이르렀으나 예배당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1917년 포교소 설립 허가를 받은 뒤 19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배당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계읍교회의 목수 김학영이 무보수로 건축을 맡았고, 김영준이 부지와 자금을, 김인신이 교회 종을 각각 봉헌하는 등 여러 교인의 헌신이 모여 5칸 규모의 예배당이 완성되었다. 로즈 선교사와 송윤진 목사도 이 건축을 도왔다. 이후 인가해교회는 산서노회에서 편성한 강계 중구역의 중심 교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김창욱이 조사로 시무하였다.

1908년에는 곡하면 홍주리에 홍주동교회가 세워졌다. 주명우와 이호근이 신앙을 받아들여 이웃에게 전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처음에는 개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신자가 늘면서 정식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1915년 로즈가 담임자로 신고되었고, 이듬해에는 김대건으로 교체되었다. 1919년에는 이강근이 장로로 장립되어 당회가 조직되었다.

1909년에는 공북면 동사동에 동사동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석과 박영식이 먼저 신앙을 받아들여 전도한 결과 신자가 늘어났고, 강계읍교회의 도움을 받아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이 교회는 특히 교인들의 재산 헌납이 두드러졌는데, 위원석은 논 20여 마지기와 금전을, 김종하는 가옥과 넓은 토지를, 박영식은 토지를, 백영신은 교회 종을 각각 기부하였다. 위원석은 인근 지역에 전도인을 파송하기도 하였다. 1919년에는 최석태를 장로로 세워 당회를 조직하였다.

1910년에는 공북면 공인동에 공인동교회가 세워졌다. 김운기가 이웃 김상정·김창술 등에게 전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김영준이 부지를, 김인호가 종을 기증하며 힘을 보탰다.

1910년대에는 곡하면 용포동에 용포동교회가 설립되었다. 설립 후 7~8년이 지난 1923년에 이르러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성탄 축하 행사를 열었으며, 1930년에는 김성도 여사가 전 재산을 교회에 봉헌하는 헌신을 보였다.

1918년 3월에는 강계읍 고당동에 고당동교회가 세워졌다. 1922년 산서노회에서 김창욱이 고당동교회를 포함한 9개 교회로 구성된 강계 중구역 조사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전일홍 노인이 종을 기증하였다. 1940년에는 탁옥현 전도사와 장로 백사명·김영로가 함께 교회를 섬겼고, 1943년에는 김희섭이 담임자로 신고되었다.

1921년에는 공북면 쌍부동 마전참에 마전교회가, 곡하면 홍주동에는 남주교회가 각각 세워졌다. 마전교회는 1923년 포교소 설치를 신고했고 1940년 김영태 전도사와 김택준 장로가 시무하였다. 남주교회는 산서노회에서 강계구역 동편에 편성되어 김창욱이 조사로 활동하였으며, 이 역시 강계 중구역 9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묶였다.

이 밖에 곡하면 쌍부동의 광대동교회(1941년 포교소 설치), 곡하면 홍주동의 응곡교회와 하남주교회, 강계읍 고당동 주막시의 주막거리교회(1931년 강계면의 읍 승격에 따라 관할이 변경됨) 등도 산서노회 관할 안에서 함께 활동한 교회들이었다.

이들 교회의 역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1942년을 전후해 동사동교회·마전교회·용포동교회·인가해교회·홍주동교회 등 여러 교회의 담임자 또는 설립자 명의가 호프만이나 로즈, 김대건 등에서 산전종진(山田宗鎭) 같은 일본식 이름으로 일제히 변경 신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 말기 종교 통제 정책 속에서 선교사 중심 체제가 강제로 해체되고 총독부의 관리 체제로 편입되어 갔

25) 미국북장로회 및 독립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부인 버사 스탠리와 함께 1921년 내한하여 강계선교부 계례지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1922년부터는 캠벨·호프만 등과 강계·희천·초산 등 산간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전도 활동을 병행했다. 1935년 미국 장로교 내 신학적 갈등 속에서 보수 노선을 택해 북장로회를 사임하고, 1936년 헌트 부부와 함께 하얼빈에 독립장로회 선교부를 세워 병원 사역과 신사참배 거부자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1941년 신사참배 거부 관련 인물로 지목되어 헌트와 함께 체포·수감되었고, 1942년 '적국 포로' 신분으로 추방되어 포로 교환 형식으로 강제 귀환했다. 이후 1974년 별세했으며, 부인 버사는 옥중 경험을 담은 여러 저작을 남겼다.

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4) 강계교회(일본조합교회)

1915년 8월 11일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면 동부동에 일본조합교회가 세워졌다. 초대 담임목사는 강계읍교회 창설의 주역으로 활동한 차학연이었고, 당시 교인 수는 약 160명이었다. 이후 1920년에는 전도사 이돈구가 사역을 맡으면서 교인 수가 455명으로 늘었다. 1922년 7월 7일에는 교단 명칭이 조선회중기독교회로 바뀌었고, 이돈구가 담임목사로, 오승걸이 전도사로 부임했다. 그에 앞서 1921년 10월 25일에는 인근 교회 직원들이 모여 제직회를 열었으며, 1922년 2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주변 지역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사흘간은 전도 대강연회가 열려 김동환이 강사로 나서 도덕과 종교, 현대사조와 기독교, 조선의 종교와 신문물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듬해인 1923년 2월 26일부터 일주일간 김동환이 다시 강사로 나서 전도 강연을 이어갔고, 같은 해 3월에는 교회 안에 청원의숙(淸園義塾)[26]을 세워 여학생 교육을 시작했다. 1928년에는 교인들이 뜻을 모아 유신야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강계 상무회가 30원, 강계군 향교가 40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의 도움도 있었다. 이후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 1931년에는 약 100명에 이르렀고, 1932년 1월 11일에는 강계야학강습소로 정식 인가를 받아 개교식을 가졌다. 1937년 8월 10일에는 김덕문이 포교 신고를 했고, 이어 1940년 3월 9일에는 변세희가 포교 신고를 하며 사역을 이어갔다.

4. 여성사역

강계 지역의 여성사역은 초기에는 독신 여성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 전도부인과 기혼 여성선교사들의 헌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블레어(Blair. William Newton 방위량)의 부인 에디스 알렌(Blair, Edith Allen)은 1901년부터 여성 전도 사역에 발을 들여, 자신이 맡은 순회 선교 구역의 여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직접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울러 여자성경학교와 각종 여성 사경회에서 강사로 나서 여성 신앙 교육에 꾸준히 힘을 쏟았다. 선교지 개척에도 남편의 곁을 지키며 힘을 보탰다. 서북 지방은 물론 만주의 신경(新京, 오늘날의 창춘) 일대까지 이어지는 순회 선교 여정에 동행했으며, 특히 평안북도 강계 선교부와 만주 신경지부, 하얼빈 지역을 오가며 여성 성경훈련반과 주일학교 교육을 이끄는 등 교육 선교 분야에서 뚜렷한 역할을 해냈다.

1902년에는 정주 권서의 아내 김씨가 남편과 함께 강계를 방문하여 약 두 달 동안 여성들을 가르치고 외국인 여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다. 이어 1903년에는 강계 여성들이 로스(C. Ross, 노세영)의 사경회에 참석한 기록이 나타나며, 당시 여성사역은 남성 선교사와 한국인 사역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1910년에는 제인 사무엘(Jane Samuel)이 강계를 방문하여 여자 사경회를 인도하였고, 같은 해 안나 레아 밀즈(Anna Rea Mills)[27]와 에바 플러머(Eva Flummer)[28]도 여성사역에 참여하였다. 또한 블레어 부인, 로즈 부인, 호프만 부인 등 기혼 여성선교사들은 여자 주일학교와 여선교회를 맡아 지역 교회를 섬겼으며, 한국인 전도부인 유익도는 오랫동안 강계교회의 여성 전도사역을 담당하였다. 1912년에는 여섯 명의 한국인 전도부인이 시골 지역으로 파송되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경회를 인도했으며, 한 해 동안 31회의 사경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 여성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강계 여성사역은 1914년 최초의 독신 여성선교사인 퓨(Carrie L. Few, 부성리)[29]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는 시골 지역을 순회하며 여성 성경학원을 운영하는 등 여성사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나 건강 악화로 1919년 사임하였다. 이후 간호사 헬스트롬(H. L. Helstrom, 허회다)이 그 뒤를 이어 1927년까지 적극적인 전도사역을 펼쳤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리제트 밀러(Lisette Miller)가 협력하여 사역을 지원하였다.

1927년 이후에는 독신 여성선교사의 공백이 발생했지만, 캠벨 부인, 베어드 부인, 바이램(Byram) 부인 등 기혼 여성선교사들이 여성사역을 이어갔다. 선교부는 존슨(O. C. Johnson, 조운선)과 릴리안 로스(Lilian Ross)를 강계에 상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1932년부터 독신 여성선교사가 다시 상주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계의 여성사역은 초기에는 한국인 전도부인과 기혼 여성선교사들



〈퓨(Few. Carrie Lent, 부성리)〉

26) 미북장로교회가 설립한 초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당시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 신앙과 근대 교육을 함께 보급했다.

27) 미북장로회 소속 여성선교사, 의사 선교사인 그린필드(M. W. Greenfield)의 부인

28) 미북장로회 소속 여성선교사, 선교사 필립스(C. L. Phillips)의 부인

29) 미북장로회 소속 여성선교사이자 교육자는 1915년 한국에 도착하여 강계선교부에 배치되었으며, 강계읍교회 주일학교와 여자성경학원, 광신여학교에서 교육사역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도부인들과 함께 지방을 순회하며 여성 전도와 성경교육에 힘썼다. 1919년 강계에서 발생한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후 건강이 악화되어 같은 해 귀국하면서 선교사직을 사임하였다. 비록 사역 기간은 짧았지만, 강계 지역의 여성교육과 교회 지도자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 헌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독신 여성선교사들의 합류와 농촌 순회전도, 여성 사경회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한국인 여성 사역자들과 외국인 여성선교사들의 긴밀한 협력은 강계 지역 여성 복음화와 교회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 강계여자야학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에 설립된 여자야학은 1926년 강계읍교회 지도자 최광선과 전영도가 일반 여성들에게 기초 지식과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명신유치원 안에 마련한 교육 과정이다. 당시 약 50명의 여성이 이 야학에 참여했다. 명신유치원 교사였던 이애신과 김복신이 함께 교육을 맡아 운영을 이끌었으며, 기초 문자 교육과 생활 지식, 여성 계몽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듬해인 1927년에도 여자야학이 다시 열려 약 60명이 참여했고, 이후로도 지역 여성을 위한 교육과 계몽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다.

2) 광신여학교(光新女學校)

광신여학교는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동부동에 자리한 강계읍교회 부속 여성 교육기관이다. 1912년 김익홍이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고, 초대 교장으로는 블레어(H. E. Blair, 방혜법)가 부임해 학교를 이끌었다. 설립 초기부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1911년 6월 열린 제3회 졸업식에서는 이순덕·강왈태·김순익·김봉익 등 4명이, 이어진 제4회 졸업식에서는 이기신·탁혜수·김반석·최웅신·김인덕 등 5명이 각각 학업을 마쳤다. 처음에는 학생 수가 30~50명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1922년에는 광신여학교 학생이 약 140명, 함께 운영되던 명신학교 학생이 약 200명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 1만 2천 원의 예산을 들여 두 학교의 교사(校舍)를 2층 건물로 새로 지었다.

1923년부터 1924년까지는 헬렌 맥스웰 오트 캠벨(H. M. O. Campbell, 안혜리)[30]이 교장으로 재직했다. 1923년 당시에는 교사 3명이 보통과 101명과 고등과 20명을 가르쳤으며, 이해 졸업생은 보통과 53명, 고등과 15명에 달했다. 이듬해인 1924년에는 이의선·김봉경·오기진 등이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을 이어갔다. 1925년 3월에는 명신학교와 광신여학교가 연합 졸업식을 열어 남자부 7명, 여자부 9명이 함께 졸업장을 받았다. 이 무렵을 전후해 광신여학교는 명신학교와 통합되어 남녀 학생을 함께 가르치는 체제로 바뀌었다.

교류 활동도 활발했다. 1923년 11월에는 영실중학교 익힘부가 주최한 영실중학교·명신학교·광신여학교 연합 토론회가 열려 세 학교 학생들이 함께 토론에 나서고 교사들이 심판을 맡는 등 교육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지역 사회의 후원도 이어졌다. 1924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오택성을 기려, 그의 부인 고택보 여사가 영실중학교·명신학교·광신여학교 세 학교에 2천 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에 힘입어 6월 21일 남장대에서 기념비 건립식이 거행되었다.

5. 의료 및 교육 사역

1) 계례지병원(桂禮知病院 Kennedy Memorial Hospital)

1909년 평안북도 강계군에 세워진 장로교 계열 병원이다. 강계 지역의 의료선교는 1908년 북장로회 강계선교부가 설립된 이듬해인 1909년 5월, 밀즈(R. G. Mills, 마일서)가 강계읍으로 옮겨오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강계읍 동문 밖 동부동의 창고를 고쳐 진료소로 썼는데, 첫해 여름에만 약 300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강계 계례지병원 전경〉

밀즈가 부인의 건강 문제로 1910년 2~4월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는 플레처(A. G. Fletcher, 별리추)[31]가 진료를 대신했다. 같은 해 뉴욕의 존 케네디(J. S. Kennedy)[32] 부부가 5천 달러를 후원하면서 단층 벽돌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1912년 2월 '케네디기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문을 열었다. 이 병원은 '계례지병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환자 수는 빠르게 늘어 1910년 약 3천 명, 1911년 약 5천 명에 이르렀고, 늘어나는 입원 수요에 맞춰 본관을 2층으로 증축했다.

1911년 9월 밀즈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옮긴 뒤로는 비거(J. D.

30) 아치볼드 캠벨(감부열)의 부인으로, 1916년 결혼 후 함께 강계선교부에서 활동했다. 1923~1924년 광신여학교 교장을 지내며 강계 여성 교육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남편에 비해 개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31)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로, 1911년부터 1941년까지 30년간 대구 동산기독병원 원장을 지내며 대구애락원(나병원) 설립 등 대구·경북 지역 의료선교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강계와의 인연은 1910년 밀즈가 부인 건강 문제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잠시 강계에서 진료를 대신 맡은 정도로 짧았다.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가 해방 후 귀환해 활동을 이어갔고, 1970년 별세했다.

32) 1910년 강계 병원 건축비 5천 달러를 후원한 인물로, 스코틀랜드 출신 미국 금융가·자선가인 존 스튜어트 케네디(John Stewart Kennedy, 1830~1909)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1909년 10월 이미 별세했기 때문에 후원이 사실이라면 생전 약정이나 유언에 따른 기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Bigger, 백이거)[33]가 병원장을 맡았다. 이어 1917년 8월에는 첫 외국인 간호사인 레러(J. M. Rehrer, 이우로)[34]가 부임해 1928년까지 근무했고, 밀러(L. R. Miller, 민리제)[35]는 1920년 8월부터 1926년 4월까지, 헬스트롬(H. L. Helstrom, 허회다)[36]은 1920년 6월부터 1927년 8월까지 각각 사역했다.

한국인 의료진의 참여도 이어졌다. 1915년에는 보조의사 김효정이 부임했고, 강계 출신인 김봉순은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마친 뒤 이 병원 최초의 한국인 간호사로 일했다. 1920년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의문이 의사로 부임했으나, 얼마 뒤 경찰병원으로 옮겼다.

[표] 1910년대 미국북장로교회 선교병원 통계

병원	연도	진료	입원	수술	왕진
제중병원 (평양)	1911	13,836	256	497	288
	1915	11,590	220	421	–
미동병원 (선천)	1911	10,299	401	134	390
	1918	20,909	1,251	–	–
재령병원 (재령)	1911	8,411	180	35	544
	1918	27,065	214	–	–
계례지병원 (강계)	1912	3,000	–	–	–
	1918	17,891	256	–	–

1920년 8월 비거가 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바이램(R. M. Byram, 배의남)이 1921년부터 1936년 6월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는 최명석·최광혜·김학수·오경주·최병석·송창인·김효순 등 여러 한국인 직원이 함께 병원을 꾸려갔다. 이 무렵 병원은 병상 약 24개를 갖추고 연간 약 7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33) 1911년 내한해 강계선교부 계례지병원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미북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다. 1914년 만주 통화까지 순회하며 사경회와 병원 사역을 도왔고, 1919년 3·1운동 때는 부상자를 치료했다. 1920년 평양으로 옮겨 기홀연합병원(평양연합기독병원) 사역을 이어갔으며, 1924년 한국 최초의 결핵병동을 사비로 세워 결핵 퇴치 운동을 이끌었다. 1941년 일제 압력으로 출국했다가, 해방 후 세브란스병원 복구와 안동성소병원 설립을 지원했으나 병원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 1951년 은퇴 후 1959년 별세했다.

34) 미국북장로회 소속 간호사·교육자로, 1917년 내한해 강계선교부 계례지병원 간호원장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강계에서 활동한 첫 서양인 간호사 중 한 명으로, 병원장 비거를 도와 진료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여학교 졸업생들을 간호사 후보생으로 양성했다. 1919년 3·1운동 때는 부상자 치료에 헌신했다. 1923~1924년 안식년 이후로는 복음 전도, 주일학교, 청년면려회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1926년에는 명신유치원을 설립해 교사들의 급여를 후원하는 등 교육 사역에도 힘썼다. 병원·유치원·주일학교·청년회 등 여러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1928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해 목사 윌리엄 불록과 결혼했으며, 1953년 별세했다.

35) 미국북장로회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민로아)와 안나 라이네케의 장녀로, 1920년 강계선교부 계례지병원 간호사로 파송되었다. 환자 돌봄과 함께 지역 간호 인력 교육에도 참여했으며, 1926년 사역을 내려놓고 귀국해 무어와 결혼했다. 1937년 남편과 사별한 뒤 한국을 다시 방문해 부친 밀러 선교사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36) 미국북장로회 소속 간호사·교육자로, 1909년 내한해 선천선교부 미동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1910년 서울 세브란스병원 지원, 이후 선천지방 여자사경회 인도 등 의료와 여성 사역을 병행했다. 1911년에는 보성여학교 교장 대행과 순회전도까지 맡았으며, 같은 해 '105인 사건' 당시 수감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감당했다.

2) 수명학교(受命學校)

수명학교는 평안북도 강계군 어뢰방 풍하리에 세워진 장로교 교육기관이다. 1912년 이백계가 설립자로 등재되었고, 블레어(H. E. Blair, 방혜법) 선교사가 교장을 맡았다. 소학교 6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설립 초기에는 학생 수가 약 10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였다.

3) 수명학교(遂明學校)

수명학교는 평안북도 강계군 어뢰면 풍청동(수명동)에 자리한 수명동교회 부속 교육기관으로, 1908년에 설립되었다. 1912년 당시에는 이학래가 설립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교장으로는 불레어(H. E. Blair, 방혜법) 선교사가 시무했다. 이후 1923년부터 1925년까지는 김기형 목사가 교장을 맡았다. 1923년에는 교사 1명이 보통과 42명과 고등과 2명을 함께 지도했으며, 1925년에는 보통과 학생이 약 10명 정도로 줄어든 소규모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

4) 명신학교(明新學校)

명신학교는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동부동에 자리한 강계읍교회 부속 교육기관으로, 1904년 이학면·차학연·김태희 등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1911년 6월 첫 졸업생으로 김경화·이항덕·이창준·유찬선 4명을 배출했고, 이듬해인 1912년에는 로즈(H. A. Rhodes, 노해리)가 교장으로 부임해 7년 과정을 갖춘 학교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 학생 수는 약 150명이었다.


〈로즈(H. A. Rhodes, 노해리)〉

1919년 3·1운동 때는 명신학교가 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학감 겸 회계였던 한봉민과 교사 정준이 강계읍 만세시위를 주도했는데, 한봉민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정준은 일본군의 발포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이후 학교는 빠르게 성장해 1922년에는 학생 수가 약 200명에 이르렀고, 같은 해 1만 2천 원을 들여 광신여학교와 함께 쓸 2층 교사(校舍)를 새로 지었다. 처음에는 남녀를 나누어 가르쳤으나 1925년부터는 명신학교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해 3월 두 학교 연합 졸업식에서 남자 7명, 여자 9명이 졸업했고, 김순일 여사가 토지 전부를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의 재정 지원도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후원회인 면학회가 남장대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115명의 신입회원을 맞았고, 이듬해 15주년 기념식에서는 오랜 후원자들을 표창했다. 1926년에는 여자토론부가 창립되고 부형회를 통한 모금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김반신 여사가 유언으로 기부금을 남기는 등 크고 작은 후원이 계속되었다.

1927년에는 동창회가 조직을 정비했고, 평북도청에 거액의 기부금 모집 인가를 신청해 이듬해 평북 전역에서 모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함석용·이창훈·김창욱 등 여러 인사가 모집원으로 나섰다. 1928년 8월에는 광신여학교가 명신학교에 완전히 합병되면서 두 학교 동창회도 명신동창회로 하나가 되었고, 회원은 약 200명에 달했다. 같은 해 초에는 설립자 이창훈, 교장 함석용, 학감 김창욱 등으로 교직원 체제가 새롭게 갖춰졌다.

이 무렵 약 1만 원을 들여 교사를 새로 지었지만 6천여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한때 폐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다행히 캠벨(A. Campbell, 감부열)[37] 선교사의 주선으로 본국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재정 위기를 넘겼다. 이후 추가 헌금으로 교원을 6명까지 늘렸으나 재정이 다시 어려워지자 교원을 4명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조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매년 적자가 이어져 간사들이 직접 순회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면학회는 1931년 다시 열려 여러 인사가 참여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캠벨(A. Campbell, 감부열)〉

교장은 시기별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23~1925년에는 캠벨이 교장을 맡아 남학생 약 150명을 지도했고, 1925년에는 교사 7명이 남녀 학생 257명을 가르쳤다. 1927~1928년에는 함석용 목사가 교장을 겸임했으나 그해 7월 별세하면서 김련 목사가 뒤를 이었다. 1930~1931년에는 김창욱 교장 체제에서 학생 수가 약 200명을 유지했고, 이후 1933~1936년은 김득호, 1937년은 김덕윤이 각각 교장을 맡았다.

1933년에는 보통과와 고등과를 합쳐 남녀 학생 약 300명이 재학했으며, 이 무렵까지 고등과 졸업생 누적 수는 89명에 달했다. 1935년에는 학생 수가 332명으로 늘었고, 1937년에도 260명가량이 재학하는 등 꾸준한 규모를 유지했다.

학생들의 헌신적인 사례도 전해진다. 졸업생 김성덕은 15리 길을 5년간 하루도 결석 없이 통학해 캠벨 선교사의 후원으로 영실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1926년에는 동창회가 사진회를 열어 그 수익을 학교 운영비로 기부했고, 1934년에는 교원 김선봉이 별하교회 하기 아동성경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하기도 했다.

37) 미국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목사·교육자로, 1916년 헬렌 오트(안혜리)와 결혼한 뒤 같은 해 12월 내한해 평북 강계선교부에 배치되었다. 강계·후창·장진·자성·위원 등 산서노회 동부 시찰 구역 교회들을 담당하며 여러 교회를 직접 설립·목회했고, 1918년부터는 명신소학교 교장, 영실중학교 교사로 교육 사역에도 참여했다. 1923년 산서노회장으로 선출되어 교회 치리권을 한국인 목회자들에게 점차 이양했고, 이후 호프만의 후임으로 명신학교·영실중학교 교장을 맡아 학교 시설을 확충했다. 1935년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영실중학교를 폐쇄했으며, 이후 산서노회 산하 80여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자와 교인들을 격려했다. 1940년 안식년 귀국 후 1947년 재입국해 대구로 사역지를 옮겼다. 한국전쟁 중에는 피난민 구제와 한국군 군목 제도 도입에 기여했고, 1951년 대구 총회신학교 초대 교장, 1954년에는 계명기독대학(현 계명대학교) 초대 학장을 지냈다. 1958년 학장직을 넘기고 귀국해 은퇴했으며, 1977년 별세했다. 부인 헬렌은 강계·대구에서 여성 교육을 지원했으며 1972년 별세했다.

5) 명신유치원(明新幼稚園)

명신유치원(광신유치원)은 강계읍 동부동에 있는 강계읍교회 부속 유치원으로, 1925년 레러(J. M. Rehrer, 이우로) 선교사가 교사 급여와 설립비를 부담해 세웠다. 초기 원생은 약 40명이었고 이애신·김복신이 교사를 맡았다. 레러는 1928년까지 원장을 지내다 귀국했고, 이후 장명현·김봉익·김태익·노일련 등이 차례로 원장을 이었다. 1927년 제1회 졸업식(9명)을 시작으로 매년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928년에는 재학생이 51명에 이르렀다. 이 무렵 김상순 여사가 소를 기부하는 등 지역 교인들의 후원도 이어졌다. 1928년에는 명신학교와 함께 교직원 체제가 정비되어 원장 레러, 원감 김애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1929년에는 최광선·전영도의 주도로 후원 음악회가 열려 기부금을 모았다. 1931년 광신학교가 명신학교에 통합되면서 광신동창회가 모은 약 700원을 유치원에 기부했고, 이를 기려 유치원 이름이 한때 '광신유치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6) 영실학교(英實學校)

영실중학교는 1908년 평안북도 강계군에 미 북장로회 강계선교부가 세운 3년제 중등교육기관이다. 개교 당시 학생 수는 40명이었고, 입학 자격은 6년 과정 보통학교를 졸업한 12~13세 이상의 남학생이었다.


강계 영실학교 전경〈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에서 발췌 및 AI보정〉

역대 교장은 블레어(방혜법, 1908~1913), 호프만(함가륜, 1914~1924), 캠벨(감부열, 1925~1937) 순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조부를 운영했고, 매년 약 20명에게 학비를 지원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강계기독교청년회의 시위 과정에서 학생 김명하가 체포되어 태형을 받았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3년에는 기부금 1만 500원과 미국 플로리다주 윈터헤븐(Winter Haven) 출신의 후원자 페린(R. G. Perrine)이 낸 3천 달러를 바탕으로 읍성 동문 밖에 2층 양옥 교사와 강당이 세워졌고, 이듬해 5월 낙성식이 열렸다. 1925년 11월 교장으로 취임한 캠벨은 오트(R. M. Ott)와 월리스(B. G. Wallace)로부터 1,500달러를 지원받아 영실

학교뿐 아니라 명신학교와 광신여학교의 건축비로도 활용했다. 1931년에는 학생 수가 약 80명이었고 이 중 약 46%가 기독교인이었으며, 교사는 4명, 누적 졸업생은 77명이었다. 1933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50명이었다.

그러나 1937년 9월 신사참배를 거부한 캠벨 교장이 파면되었고, 결국 1939년 2월 학교는 폐교되었다.

7) 구을리서관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면 동부동에 있던 기독교 서점으로, 평양 대동상회의 분매소 역할도 함께 맡았다. 초기에는 기독교 서적과 성경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이 커지면서 1918년 무렵에는 신구약 성서와 각종 기독교 서적은 물론 일반 소설, 학용품, 잡화까지 함께 취급하는 종합 서점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에는 대대적인 광고 활동도 펼쳤다. 대표자는 안병한이었으며, 1922년 무렵에는 평양 능라도리 대동상회에서 펴낸 『정정중보 성경요령(訂正中補 聖經要領)』[38] 등을 판매하는 등 기독교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8) 파철성경학교 (播哲聖經學校)

파철성경학교(강계성경학교)는 평안북도 강계읍에 산서노회가 세운 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산서노회 관할 각 교회의 교역자들이 매년 한 달씩 모여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17년 첫 입학생 45명 중 39명이 과정을 마쳤고, 초산·위원·수하·강계·자성·후창·서간도 등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초기 교사로는 로스(C. Ross, 노세영), 호프만(C. S. Hoffman, 함가륜), 김진근, 김대전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3월 제1회 졸업식에서는 각 지역 영수·권서·집사·장로·조사 등 여러 직분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후로도 매년 졸업식이 이어졌다. 1924년 제5회 졸업식에서는 김희섭·이원백 등이, 1925년에는 평양의 블레어(W. N. Blair, 방위량)와 의주 안승원 목사를 초빙해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학생 수는 약 53명이었다. 1927년에는 이기형·캠벨(A. Campbell, 감부열)·베어드(R. H. Baird, 배의취)[39] 등이 교사로 참여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여자성경학교가 별도로 개설되어 천마리아·김애신 등이 가르쳤다.

38) 한국 초기 개신교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성경교재이자 신앙문답서이다. 성경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신자와 세례 지원자, 교회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39) 평양숭실대 설립자 윌리엄 M. 베어드(배위량)의 아들로, 1923년 내한해 강계 지방 순회 전도와 파철성경학교(강계성경학교) 교사·교장으로 활동하며 교역자 양성에 기여했다. 이후 1957년 재입국해 미북장로회 한국선교부 총무를 지냈고, 1995년 별세했다. 베어드 선교사 가문의 일원으로 대를 이어 한국 선교에 헌신한 인물이다.

1935년에는 남자부와 여자부가 차례로 운영되었는데, 남자부에는 약 50명이 입학했고 여자부에는 약 60명이 참여했다. 이 시기 교장은 존슨(O. C. Johnson, 조운선)[40]이었다. 1937~1938년에는 남자성경학교 학우회가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회장·서기·회계 등 임원진을 갖추었고, 캠벨·블레어(H. E. Blair, 방혜법)·김진·김병극·김창욱 등이 교사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도 장날 노방전도와 주일 교회 방문 예배 봉사 등 실천적 활동을 병행했으며, 종교강화회·음악 콩쿠르·설교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이 무렵 오랫동안 강사로 봉사했던 김대진 목사의 추도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베어드(R. H. Baird, 배의취)〉

6. 해방 이후

1949년 북한이 평안북도 동부를 분할해 자강도를 신설하면서 강계읍이 강계시로 승격되어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행정 중심지가 되면서 정권의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당시 강계시는 전쟁 중 북한 정권이 한때 밀릴 때 임시수도 기능을 하기도 한 곳이라, 산악 오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히려 격렬한 폭격과 군사적 요충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 이후 살아남은 신자들은 신앙을 숨기고 산간이나 변경 지역에서 은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루터기 신앙인'(지하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강도 지역에 지하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에 북한 정치보위부(현 국가정보국)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최○○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북한이 조작한 가정교회가 아닌, 진짜 지하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하교회는 조직화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모여도 두세 명이 몰래 모이는 형태를 띄고 있다.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일부지역에 80세 이상의 성도들이 존재한다. 80여 명으로 추측 조사된 이 숫자는 2001년의 보위부 분석자료이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에 중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아 재입북한 사람들, 평안북도 지방에 있는 옛 신도들의 자손들 그리고 대대적인 기독교 숙청에서*

40) 미국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1921년 한국에 입국하여 청주선교부에서 약 9년간 주일학교, 여성 성경교육, 전도부인 사역을 담당하였다. 1931년 강계선교부로 부임한 뒤에도 지방 여자사경회와 성경학원 강의, 순회 전도에 헌신했으며, 강계 지역 여성들의 신앙생활과 순회 선교 경험을 선교 보고서에 소개하였다. 194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안동선교부 경안고등성경학교에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쳤고, 교장과 기독교세계봉사회(CWS) 실행위원으로 한국교회 재건에도 기여하였다. 1959년 은퇴하여 귀국했으며, 1978년 별세하였다.

도 살아남은 신도들이 있다."[41]

또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의사로 일하다 탈북한 최○○ 씨는 40여 년간 함경도 일대의 지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온 이○○ 목사에 관해 증언을 남겼다.[42]

최 씨에 따르면, 이 목사는 처음에는 만성 위장병 치료차 그를 찾아온 환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해 신앙을 갖게 만든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 목사의 부친 역시 목회자로, 해방 이전 세워진 칠골교회에서 훗날 북한 국가부주석에 오르는 강량욱(1904~1983)과 함께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련 군정기에 접어들며 강량욱이 김일성과 함께 신앙을 저버렸고, 이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친이 체포되어 총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개인사를 겪은 이○○ 목사는 평생 공산 체제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은 채 은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의 지도 아래 있던 지하 신자들 상당수는 북한 사회 내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40년 넘게 비공개로 목회를 이어가던 이 목사는 결국 1996년 10월 함경남도 금야군 용남리에서 보위부에 체포되었다. 이른바 '1996년 함경남도 기독교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의 체포를 계기로, 그와 연결되어 있던 신자들이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자강도에 걸쳐 약 180명가량 파악되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길러낸 신자들의 신앙 계보는 오늘날까지도 북한 내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관련 증언의 요지다.

7.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강계의 초기 교회사 전체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이 지역을 바라보는 선교적 관점에도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수정되어야 할 인식은 자강도를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미개척지'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현재의 자강도는 북한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탈북민의 수도 매우 적어 외부에서는 복음의 흔적이 거의 없는 곳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해는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다. 강계에는 20세기 초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학교와 의료기관이 함께 운영될 정도로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킨 교회와 교육기관이 존재했고, 해방 이후에도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자강도 일대에 신앙 공동체가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여러 증언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고려하면 자강도는 복음을 처음 전해야 하는 '빈 땅'이라기보다, 한때 복음이 깊이 뿌리내렸으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단절을 겪은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교 역시 새로운 출발만을 강조하기보다, 과거의 신앙 유산을 회복하고 끊어진 신앙의 맥을 다시 이어 가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강도가 가진 지리적·정치적 특수성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자강도는 두만강 접경 지역과는 환경 자체가 크게 다르다. 압록강 상류는 자연적 장벽이 높아 이동이 쉽지 않고, 군수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민 이동과 외부인의 접근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실제로 자강도 출신 탈북민의 비율은 다른 북중 접경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외부와의 접촉 기회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함경북도나 양강도에서 활용되어 온 대북 선교 방식이나 접경 사역의 경험을 자강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을 하나의 동일한 선교 대상으로 이해하기보다 지역별 환경과 통제 수준, 접근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강도와 관련된 신앙 공동체의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는 이유 역시 선교적 관심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지역이 지닌 높은 폐쇄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결국 강계와 자강도의 교회사는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지역은 복음의 씨앗이 전혀 뿌려지지 않았던 곳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신앙의 전통을 경험했던 땅이며, 오늘날의 과제는 새로운 복음을 들여보내는 것에 앞서 과거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 갈 길을 준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해는 자강도를 바라보는 선교적 시각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장차 통일 이후 교회 재건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41) '예수쟁이' 앞길에는 모진 고문과 죽음 뿐, 교회와 신앙, (2005.10.31.)
42) 북한 '카타콤(지하교회)' 존재 확인, 미래한국, (2029.04.15.)

칼럼 5

강계와 기독교 다시 울려라, 그 종소리!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강계, 어떤 곳인가?



북한 언론에서 보도한 강계시 가을 전경〈사진:위키백과〉

강계는 소속과 행정구역의 변화를 많이 겪은 곳이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였고 발해 시절에는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에 속해 있었다. 이후 고려의 땅이었고 조선조 시절에는 강계도호부였다가 1695년에 평안도 강계부가 되었는데 1896년에 평안도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로 분리될 때 평안북도 소속이 되었다.

북한은 1949년 1월에 평안북도 동북부의 여러 군에 함경북도 장진군(長津郡)의 일부를 더해 자강도(慈江道)를 신설했다. 자강도는 분단 이후 최초로 신설된 군이었는데 이때 강계는 자강도의 도 소재지(중심도시)가 되었다.

자강도라는 이름은 자성과 강계의 첫 글자를 합해서 만든 것이고, '강계'는 그 지역에 장자강을 비롯해서 북천, 남천 등 강과 하천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갖게 된 이름이다. 길이 232km의 장자강(將子江)은 압록강의 제1지류로서 1967년까지는 이름이 독로강(禿魯江)이었기 때문에 실향민들은 독로강이라는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다. 장자강 주변에는 관서팔경의 하나인 인풍루(仁豊樓)를 비롯해서 경치가 좋은 곳들이 여럿 있다.

강계는 '강계미인'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그리고 강계포수도 유명하다.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 때 좌선봉장 양헌수(梁憲洙)는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강계 포수 500여 명을 지휘하여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평안북도 동북지역의 정치·경제·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7개 지역을 예전부터 '강변7읍'이라고 불렀는데 강계는 '강변7읍'의 으뜸이었던 곳이었다.

6·25 전쟁 당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긴 남한은 부산을 임시수도로 삼았다. 전세가 반전되어 국군과 UN군이 빠르게 북진하여 평양을 비롯하여 북한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 김일성은 강계를 임시수도로 삼았다.

강계와 관련된 이런 일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다. 그런데 강계가 교회가 강한 영향을 미친 곳 가운데 하나였었다는 사실은 이상하게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졸고에는 강계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lso in Kanggye under Kim Il Sung was a recently formed *Combined Headquarters* staffed by both North Korean and Chinese officers. Kim was publicized as commanding the operations of both North Korean and Chinese forces from this headquarters, but the combined agency was really no more than a mechanism for coordinating North Korean operations with those of the Chinese, and Kim's voice in the conduct of joint operations was no stronger than the forces he was able to field. As of 23 November, these forces were few. North Korean air and naval forces, de-

한국전쟁 당시 강계에 북한군과 중국군의 사령부가 있었다는 문건이 담긴 미국 육군 군사사 센터 보고서(워싱턴,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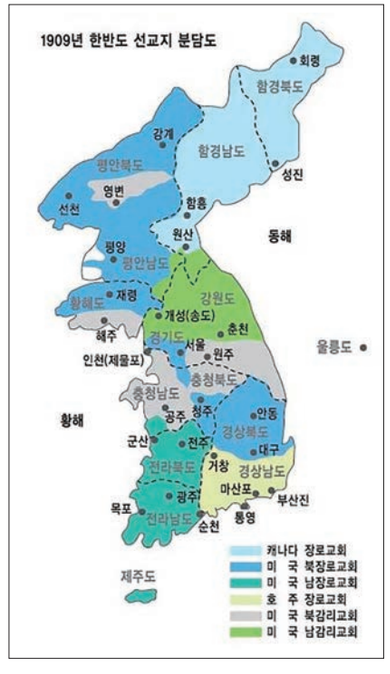
산서노회와 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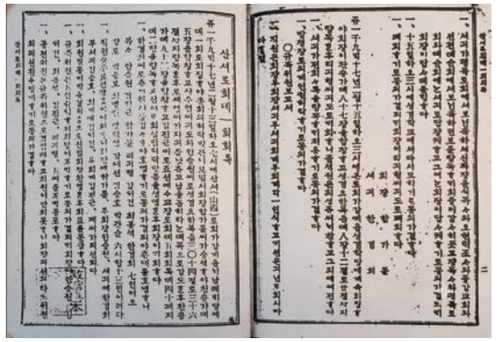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회들은 선교지역의 중복에서 오는 혼선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선교회별로 선교담당구역을 나누어서 엄격하게 지키며 선교했다. 이것을 선교지역분할정책, 또는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고 부르는데 평안북도의 많은 지역은 미북장로회가 선교를 담당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북장로회는 담당구역의 중요거점들에 선교지부(宣敎支部, Mission Station)들을 설치하였는데 1908년에 강계에 선교지부가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강계가 일찍부터 기독교 선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로교는 노회(老會)를 중추로 하고 있는데 한국 장로교에서 노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1907년 평양에서였다. 이 노회를 독로회(獨老會)라고 부르는데 노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1912년에는 총회가 조직되었다. 총회가 조직된 곳도 평양이었다.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이 노력으로 평안북도의 동북지역에

〈선교지역 분담도〉





산서노회 제1회 회록 (1917년 2월 13일)

교회들이 많아짐에 따라 1916년에 열린 제5회 장로교 총회는 평북노회에서 산서노회(山西老會)를 분립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1917년 2월 13일 강계읍의 남장대교회(南章坮教會)에서 제1회 산서노회가 열렸다. 산서노회가 창립된 남장대교회는 강계읍교회의 옛 이름이다. 이 교회는 1900년에 설립되었는데 동문안교회, 동문내교회, 동문동교회, 강계읍동문내교회, 강계읍남교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이 교회는 1910년, 강계읍 남장대 앞에 대지를 마련하여 60칸 예배당을 건축하고 5월에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이름이 남장대교회가 되었다가 뒤에 강계읍교회로 바뀌었는데 해방 전 장로교 주소 파악의 기본자료인 장로교의 "1938년 주소록"이나 『1940년 연감』에는 여전히 남장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

산서노회의 관할구역은 자강도와 거의 일치한다. 필자는 근 10년 전에 「기독교사상」에 북한의 각 도를 순례하며 그 도에 어려 있는 기독교의 자취를 소개하는 글을 1년간 연재한 일이 있는데 2017년 11월호에 자강도 편을 싣게 되었다. 이때 제목을 "자강도: 산서노회의 도"라고 하였다.

산서노회는 처음에는 평안북도 동북지역의 장로교회들과 함께 서간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도 관할했는데 1921년 4월에 남만노회(南滿老會)가 설립되어 서간도 지역의 교회들의 치리는 남만노회로 이관되었다.

산서노회가 설립되었을 때 노회 안에는 조직을 완전하게 갖춘 조직교회 11개, 미조직교회 114개, 기도처 102곳이 있었고. 선교사 3명, 한국인 목사 7명, 장로 18명, 남자 전도사와 권서 6명, 남자 조사 9명, 여자 조사 6명, 여자 전도인 1명, 영수 84명, 세례교인 2,916명, 학습 교인 1,095명, 원입교인 3,105명, 전체 교인 7,694명이 있었다.

10년 뒤인 1927년의 산서노회는 조직교회 24개, 미조직교회 83개, 선교사 2명, 한국인 목사 7명, 장로 43명, 안수집사 4명, 남녀 서리 집사 310명, 남자 조사 3명, 여자 조사 13명, 남자 전도인 3명, 영수 141명, 세례교인 7,555명, 학습 교인 1,253명, 원입교인 2,793명, 전체 교인 11,601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해방 전의 마지막 기록인 1942년의 통계를 보면 산서노회에는 조직교회 36개, 미조직교회 61개, 기도소 97개, 목사 14명, 장로 62명, 안수집사 41명, 남녀 서리집사 401명, 남자 전도사 24명, 여자 전도사 16명, 영수 103명, 세례교인 2,593명, 학습 교인 817명, 원입교인 2,012명, 전체 교인 5,968명이 있었다.

해방 전 마지막 통계라고 하면 1944년이나 1945년의 자료를 제시해야 할 터인데 일본 당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조선의 교회들을 일본의 교회에 종속시키려는 조처로 강력한 탄압을 시행하였다. 이때 순교자들이 여럿 발생했다 그 위에 한국어 사용 금지 등의 여러 조치에 따라 1940년대 초반 이후의 교회 관련 기록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앞에 "강력한 탄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 1942년의 교인 숫자가 1927년보다 적어진 이유도 이해가 될 것이다.



강계 선교지부〈사진:평북노회 100년사〉

강계의 기독교 중심지

강계의 기독교 중심지는 동부동(東部洞)이었는데 동부동은 이름 그대로 강계의 동쪽에 있는 곳이다. 해방 후 북한의 지명에는 변화가 많았는데 동부동은 옛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 관련 기록에 동부동에서 남문동·동문동·남산동·관전동·부창동·고영동·야학동이 분립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동부동이 꽤 넓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북한에서 하나의 동이 이렇게 여럿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남포(옛 이름 진남포, 현재 남포특별시)의 비석동이 상비석동·중비석동·하비석동으로 나뉘어진 것과 강계 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다.

강계읍 교회 이야기·계례지(桂禮知病院, 케네디) 병원 이야기

강계읍에는 장로교회가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주막거리교회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 '주막'은 한자로는 '酒幕'이라고 적는데 "1938년 장로교주소록"에는 이 교회의 이름이 한자로 '主幕巨里敎會(주막거리교회)'라고 적혀 있고, 주소도 '江界郡 江界邑 古堂洞 主幕市(강계군 강계읍 고당동 주막시)'로 나온다. 주막의 '주'가 '酒'에서 '主'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경위는 모르겠지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계에서, 아니 산서노회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앞에 이미 이름이 나온 강계읍교회였다. 이 교회는 김관홍(金寬弘)의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문 안의 작은 집을 사서 예배를 드렸고 1904년에 예배당을

건립하여 공식적인 출발을 하였다. 이때 주변의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고 뒤에. 일부 교인들이 선교사들에게 반기를 들고 적지 않는 교인들이 갈라져 나가 자유교회(自由敎會, 조선회중기독교)를 세우는 일도 있었다.


남장대(강계읍)교회 전경〈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I 〉

1918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산서대사경회가 강계읍교회에서 열렸는데 신유(神癒)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새벽기도를 인도하였다. 남녀 4백 명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 합심기도를 하였고 십일조를 작정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며 평생 근검절약해서 마련한 논 한자리를 온전히 교회에 바치는 과부도 있었다고 한다.

강계에는 교회가 세운 학교와 병원이 여럿 있었다. 먼저 교육기관을 보면 1913년 가을에 여자 성경학원이 세워졌고 이듬해 3월에는 남자 성경학원이 문을 열었다. 이 두 성경학원은 산서노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또 명신유치원이 있었고 명신학교도 있었다.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여자야학도 있었으며.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영실중학교(英實中學校)도 있었으며 광신여학교(光新女學校)도 있었다.

의료기관으로 계례지병원이 있었다. '계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케네디(Kennedy)의 한자 표기이다.


밀즈(마일서)〈사진:내한선교사 사전〉

미 북장로회 강계선교지부가 설립된 다음 해인 1909년 5월 1일 시카고 출신의 의료선교사 밀즈(R.G. Mills)가 강계읍으로 이주하면서 강계의 의료선교가 시작되었다. 밀즈 선교사는 강계읍에 도착한 다음 날 짐을 정리할 틈도 없이 남자 환자의 목수술을 하였고 그해 여름에 3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바쁘게 보냈다. 밀즈의 한자 이름은 마일서(馬壹瑞)인데 사람들은 그를 밀의사(密醫師)라고 불렀다. 밀즈 의사는 강계읍 동문 밖 동부동에 있는 장작을 쌓아두는 창고를 개조해 진료소로 사용했다.

1910년 뉴욕 케네디(J.S. Kennedy) 부부가 5,000달러를 헌금했는데 이 헌금으로 단층 벽돌 건물을 신축해 1912년 2월에 케네디 기념병원(한국 이름 계례지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계례지병원은 본관 건물을 2층으로 증축했으며 밀즈 선교사가 서울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옮긴 후 비거(J.D. Bigger, 백이거)가 병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계례지병원에는 한국인 의료인들이 여러 명 근무했다. 이 병원의 병상 수는 24개였으며 한 해 동안 약 7,0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1934년에는 3만 원의 거액을 들여 3층 벽돌집으로 아름다운 새 건물을 짓고 낙성식 겸 헌당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북한의 중요도시 가운데 하나인 강계에 미국 대통령 가문의 이름을 딴 의료선교기관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되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강계에 위치한 계례지병원 전경
〈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I 〉

만세운동의 시발이 된 남장대교회의 종소리

1919년 2월 25일, 남장대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대건(金大鍵)으로 변경 신고되었다. 평안북도 초산군 출신인 김대건 목사는 1916년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강계 주변의 교회들을 담당하다가 남장대교회와 강계읍동문내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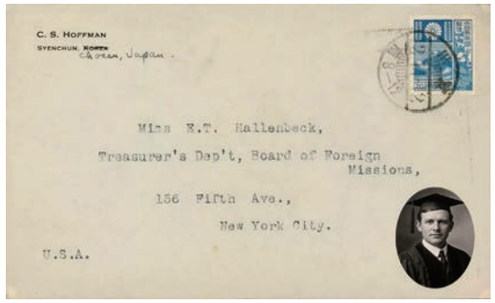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강계에서도 장날인 4월 8일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만세시위를 준비하는 분들은 계례지병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 2,000부를 찍었다.


江界獨立運動

강계독립운동 "작년 삼월 하순에 평양신학교 학생 주하룡 군의 대귀한 독립선언서를 본하야 한봉민 정준 김경하 삼 군의 주선으로 선언서와 태극기 각 천여 매를 등사하야 동 사월 팔일 상오 십일시에 시위운동하기로 결정하고 칠일 야에 학생 십인에게 구역을 분정하야 익일 정각에 선언서와 국기를 배부케 하다. 팔일 정각에 교회당 종성을 군호 삼아 예정대로 선언서와 국기를 배부하며 이천여의 남녀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열창하며 시가로 진행을 시작하다. 잔학한 왜졸들은 무참히 사격을 난가하야 정준 김병찬, 손주송, 한부인 사씨는 당장에 즉사하고 십수인은 중상을 부하다. 당시에 왜졸에게 피포된 자 삼십일인인데 신의주 왜법원으로 압송되어 십팔 명은 징급선고를 받고 십삼 명은 각태구십 식에 처하였는데, 그중에 탁창국, 김명하 두 청년은 태독으로 인하야 선천 미동병원에 입원 치료하다가 탁군은 작년 오월 이십삼일에, 김 군은 동 이십오일에 철천의 원을 품고 세상을 하직하다." - 강계 만세시위 관련 보도 「독립신문」(1920.1.13.)〈사진: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강계의 만세시위의 중심에는 남장대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다. 이름을 옮기면 장로 명운행(明雲行), 강계읍교회 집사로 명신학교의 학감과 회계였던 한봉민(韓奉珉), 명신학교 교사 정준(鄭儁)과 한시원, 영실중학교 교사 김경하(金京河) 등이다. 교사 정준과 한시원은 현장에서 일본군의 발포로 머리에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한봉민과 김경하는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2년 6개월, 명운행은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강계의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만세시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호프만(C.S. Hoffman, 咸嘉倫) 선교사이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인 호프만 선교사는 1910년 10월에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평양에 부임하여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평양 주변의 여러 교회를 돌보았다. 그는 1912년 9월 강계선교지부로 옮겨 강계 일원의 교회들과 학교들을 보살폈다. 산서노회가 조직될 때 초대 노회장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



강계에 이어 선천에서 사역하던 호프만 선교사가 뉴욕으로 보낸 카드의 봉투. 발신지를 "KOREA"라고 적었다가 줄을 긋고 "Chosen Japen"라고 바꿔, 일제 강점기의 사정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다. 원내의 사진은 호프만 선교사의 모습이다〈사진: 1907revival〉

다 한국인 목회자들과 전도인들을 앞세웠다.

호프만 선교사는 청년회 조직을 제안하여 만세시위 석 달 전인 1월 10일 강계남자성경학교에서 강계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되었는데 바로 이 청년회가 강계만세시위의 주동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일경에게 체포된 제자들이 가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보고 일본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는 북장로회 선교부의 총무에게 "이번 봉기는 어떤 한 조직이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진정으로 희망과 소원이 가득 찬 민족이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계에서 12년간 일한 호프만 선교사에게 1924년 선천(宣川)선교지부가 새로운 임지로 주어졌다. 강계의 교인들은 8월 26일 강계읍교회에서 '함가륜 선교사 전별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강계의 만세 시위는 남장대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시작되었다. 일제는 교회의 종이 만세시위를 시작하는 신호였다고 하여 오랫동안 종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해의 10월 4일에 개회된 장로회 제8회 총회 회록의 각 노회 정황보고서에는 3·1만세운동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겪은 어려움이 거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데 산서노회의 보고서에는 교인들이 당한 사망, 태형, 구류, 복역 등이 적혀 있으며, "강계읍교회당 종(鍾)은 만세운동을 시작한 고로 지금까지 그 종을 치지 못하오며"라는 말이 덧붙어 있다.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종도 함께 '직무정지'라고 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은 것이다.

강계 남장대교회의 종소리는 이 민족이 해야 할 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강계에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시대에 이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로워진다.

자강도를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

제목 : 자강도 사람들 (2000)



자강도를 배경으로 하는 예술 작품으로 북한에서 손꼽히는 영화로는 〈자강도 사람들〉이 있다. 2001년 5월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던 〈자강도 사람들〉은 노동신문이 "이 영화에는 '사회주의 본태(실체)'가 담겨 있다"[1]고 평가하기도 했던, 북한이 말하는 '강계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에게도 이 영화는 주목할 만한데, 고난의 행군 직후에 북한에서 나온, 고난의 행군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자강도에서 중소형 발전소 19곳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건설돌격대 여단장 강호성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영화는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편당 80여분 가량의 길이로 전편에는 주로 고난의 현실을, 후편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편의 스토리는 예상 외로 그 당시 북한에서 나왔다고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초반부터 전력부족과 자재난

1) "영화 '자강도 사람들' 북한서 인기몰이", 중앙일보 (2001.02.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914603〉

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사 현장 모습, 40알 가량의 볶은 강냉이를 식사로 나눠주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1부의 클라이막스는 후방참모 송만호의 죽음이다. 돌격대 여단은 대대별로 풀뿌리, 벼뿌리, 나무껍질, 이탄(니탄)[2] 등을 이용하는 대용식품 품평회를 열기로 한다. 그런데 대원들의 먹을거리로 이탄을 캐러 갔던 송만호는 캐낸 이탄을 옮기다가 얼어 죽게 된다. 대용식품 품평회는 그를 추모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강호성은 아래와 같은 추모사를 이야기한다.

> *"우리는 방금 희생된 동지의 시신을 언 땅에 묻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피눈물을 뿌리며 시작한 이 고난한 행군이 이처럼 가슴 아픈 희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고,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풀뿌리와 나무껍질, 이탄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북한에서 나오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고난의 행군 당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이 영화의 주제는 아니다. 영화의 주제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1편에서 송만호가 이탄을 캐기 위해 홀로 움직였던 것은 사실 그 이전에 장군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와야 했던 텔레비전을 가지고 오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었다. 노동자들도 간에 기별도 가지 못할 강냉이 40알을 '별맛'이라고 감사해하며, 힘든 노동 속에서도 농담을 나누며 웃으며 일하지만, 장군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분위기가 심각해지며 송만호를 비판하고, 배가 곯는 것보다 장군님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슬픔이라 말한다.

2편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돌격대 기술자 류성길의 딸 류미의 어머니(영애)는 선반노동자로 일하다가 과로로 숨을 거둔다. 류미는 미술에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 예술학교 입학 시험장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백지를 제출한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여단장 강호성은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교 측에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류미가 평소에 그린 여러 작품을 본 학교 측에서는 이를 수락한다. 재시험장에서 주어진 주제는 '그리는 마음'. 이 주제를 표현하고자 류미가 그린 그림은 돌배를 실로 나무에 묶는 소녀였는데, 누런 돌배가 익어갈 때 자강도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장군님을 그리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었고, 예술학교에 합격하게 된다.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양기철의 아내 정아가 주역이다. 양기철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실려가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자신의 임무를 마저 수행해달라고 부탁한다. 정아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공사를 위해 필요한 강재를 구하기 위해 제철소로 갔고, 만삭의 몸에도 이를 숨기고 열심히 일하여 제철소 노동자를 감동시켰다. 제철소 노동자은 그녀를 '강계 여자'라 부르며 칭송하지만, 정아는 일을 하다가 산기가 와서 쓰러진다. 아이를 출산한 정아를 문안한 후 강재를 구하기 위해 제철소 지배인을 찾았던 강호성은 지배인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한다. "애 가진 여자를 미끼로 이천 톤을 낚아보겠다고?"라며 빈정대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렇지만 '강계 여자'의 이야기가 장군님에게 알려지면서 자강도에 강재가 공급되게 되고, 강호성은 장군님의 은덕을 칭송한다.

2부의 마지막에는 드디어 발전소가 완공이 된다. 노동자들은 장군님을 모실 준비를 하지만, 눈이 내리면서 장군님이 오시지 못하게 되자 크게 상심한다. 그렇지만 장군님께서 험한 길을 뚫고 각 중소형 발전소를 돌아보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자강도 사람들'의 주제는 전형적이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전개는 분명 특별하다. 40알의 강냉이를 식사로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눈밭을 해매다 죽거나 약이 없어 병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당국이 제작에 관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까지 했던 이 영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예사롭지 않다. 왜 북한은 이러한 영화를 제작했을까? 전영선과 권정기는 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북한 체제의 자기 서사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고난의 행군이 끝났음을 표현하는 문화 의식의 일환이라 평가한다.[3] 북한 체제를 위협했던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식의 해석'이 필요했고, 승리에 대한 기억이 필요했던 북한에게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고난의 행군 서사를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과거의 어려움을 무조건 미화하는 대신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청하는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었고, 이를 극복하고

2) 지하에서 오랜 세월 지압과 지열 작용으로 생성된 석탄과는 달리, 식물체가 지하게 매몰되지 않고 배수와 통기가 불량한 습지 같은 곳에서 분해되지 못한, 완전히 탄화되지 않은 상태의 석탄이다. 토탄이라고도 불린다.

3) 전영선, 권정기 (2013),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pp. 205-227.

승리했다고 선언하여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화에서 묘사되는 자강도는 척박하기 그지없다. 영화의 배경은 절반 이상 눈밭과 매서운 추위, 그리고 험준한 산악 지역이다. 물자도 항상 모자란다. 영화에서 묘사된 자강도 노동자들도 먹을 수 없는 이탄으로 대용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탄을 캐다가 죽거나(송만호), 만삭의 몸으로 노동에 나서거나(정아), 선반 노동자였던 어머니가 과로와 굶주림으로 숨지는(류미) 등 극한의 상황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영화의 제작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현실보다 순화된 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자강도 사람들이 겪었을 고난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영화에서는 제일 못사는 지역인 자강도이지만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중소형 발전소 건설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선전한다. 그렇지만 실제 고난의 행군 당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중소형 발전소 공사에 동원된 자강도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했을까? 현재도 자강도는 군수공업기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경제 발전이 가장 더디고 배급에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영화에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그들의 영웅적인 복무를 기리기 위함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영화를 시청하면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극한의 노동 현장에 내몰려야 했던 자강도 사람들이 떠오른다.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씁쓸한 여운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이다.

강계 출신의 유명인

김경하(金京河, 1895~1996)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김경하〈사진=위키백과〉

1895년 평안북도 강계군 출생하여 1919년 강계 영실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정준, 한봉민 등과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기독교·천도교 측을 규합해 21명의 동지를 확보했다.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은밀히 진행한 끝에, 4월 8일 강계읍(남장대)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시위군중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채 시위는 해산됐다. 체포된 김경하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병보석 석방됐다. 이후 만주로 피신해 화북신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귀국, 장로교 목사로 황해도 신천읍에서 활동했다. 정부는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으며, 1996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강주룡(姜周龍, 1901~1932)


여성 노동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강주룡〈사진=위키백과〉

1901년 평안북도 강계군 출생. 14세에 서간도 통화현으로 이주해 농사를 지었고, 20세에 결혼 후 조선으로 돌아와 평양 평원고무공장에 취직했다. 1930년 평양고무직공조합 파업에 참여했고, 1931년 평원고무공장 사장이 임금 17% 삭감을 통보하자 파업을 주도했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자 단식투쟁('아사동맹')을 벌였고 결국 전원 해고당했다. 이에 무명천 밧줄을 타고 을밀대 지붕에 올라 7시간 동안 연설하며 노동자 권익을 호소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공농성으로 기록됐으며, '체공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경찰서에서도 단식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회사는 임금 인하를 철회했지만 그녀는 복직하지 못한 채 적색노동조합 가입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32년 병보석으로 출소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31세로 순국했으며, 평양 서성대 묘지에 안장됐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으나,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기념을 하지 않는다.

김준엽(金俊燁, 1923~2011)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마지막 광복군 김준엽〈사진=매일경제〉

1923년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지주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게이오기주쿠대학 재학 중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었으나, 중국 쉬저우 배치 후 탈영해 장준하와 함께 수천 리를 걸어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이후 광복군에서 이범석 장군의 부관으로 활동하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고, 이범석의 비서 민영주와 결혼했다. 해방 후 중국에서 잠시 활동하다 1949년 귀국해 고려대 사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1957년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해 국내 최초의 공산권 연구실을 만들어 공산주의 연구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중국 연구에서도 손꼽히는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유엔총회 한국 대표를 세 차례 지냈고, 사상계 주간도 맡았다. 여러 차례 총리직을 포함한 입각 제의를 받았으나 학자의 길을 고수하며 모두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임시정부 법통 계승' 문구를 헌법 전문에 넣는 데 기여했고, 상하이에 있던 임정 요인들의 유해 봉환에도 힘썼다. 퇴임 후 회고록 〈장정〉을 집필했으며, 1989~1999년 대우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2011년 별세했으며, 생전 건국훈장 애국장에 이어 타계 직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서광선(徐洸善, 1931~2022)


강계 출신 신학자 서광선〈사진=위키백과〉

자강도 강계 출신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이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복무한 뒤 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6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리대학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서울 현대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하기도 했다. 이후 세계 YMCA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과 홍콩의 여러 신학·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초빙교수와 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한국 신학계와 기독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종교와 인간』,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반성』, 『The Korean Minjung in Christ』 등이 있다.

김경오(金璟梧)


대한민국 최초 여성 공군 조종사 김경오〈사진=BAZAAR〉

자강도 강계 출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공군 조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1949년 동덕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공군의 여성 비행사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으며, 이후 끈질긴 노력으로 조종훈련을 받았다. 1952년 5월 12일 첫 단독비행에 성공했으며, 6·25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며 기밀문서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1956년 공군 대위로 전역한 뒤에도 미국 유학과 국제 여성 항공인 활동 등을 통해 한국 여성의 항공 분야 진출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제여류비행사협회 한국 대표, 한국여류항공클럽 대표, 여성 항공인 양성 및 항공 발전 활동, 국제항공연맹(FAI) 활동, 대한민국항공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장녀 이보영은 영어 강사로 교수이자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영환(高英煥)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사진=위키백과〉

1953년 자강도 강계시 출생하여 북한 외교관으로 김일성 통역까지 맡으며 승진했으나, 차우셰스쿠 처형 영상을 본 뒤 김씨 일가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귀국 지시가 내려오자 신변 위협을 느껴 잠적, 1991년 홀로 탈북했다. 북한에서는 외교부 과장과 아프리카 지역 외교관을 지냈고, 탈북 후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초대 부원장을 역임했다. 정년 퇴직 후에도 같은 연구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객원 연구위원, 한국관광대학교 겸임 교수로 활동 중이며,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고정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도 활발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 초빙됐고, 2024~2026년 국립통일교육원장을 지냈다.

강계의 대표음식

강냉이느릅쟁이국수



〈사진=「숨겨진 맛 북한전통음식」(2013)〉

느릅쟁이국수는 옥수숫가루나 메밀가루에 느릅나무 껍질(또는 뿌리껍질)을 빻은 가루를 섞어 반죽한 국수다. 이 지역에서 즐겨 먹던 별미였던 까닭에 강계국수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느릅나무 껍질이나 뿌리껍질을 갈아 만든 이 가루는, 과거 북한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재 성분으로도 활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가루로 빚은 느릅쟁이국수는 자강도 강계와 만포 일대에서 특히 사랑받던 향토 음식이다.

언감자떡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는 감자 산지답게 감자를 활용한 음식 종류도 풍성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언감자 요리인데, 겨울 동안 얼렸던 감자를 봄철에 녹말가루로 가공해 국수나 떡, 지짐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얼린 감자에서 뽑아낸 전분을 언감자가루라고 하며, 은은한 쓴맛과 구수한 풍미를 지니고 있고 익히면 쫀득한 식감과 함께 검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루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이 언감자떡인데, 언감자가루로 반죽한 피 안에 양배추나 무, 시래기, 다진 돼지고기 같은 소를 채워 만두 형태로 빚은 뒤 쪄서 먹는다. 때로는 팥소를 넣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설탕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팥소보다는 채소를 볶아 넣는 경우가 더 흔하다.



〈사진=https://blog.naver.com/chamdoctor/220286214661〉

인풍술(강계포도술)



인풍술은 자강도 강계시의 특산주로, 이 지역 포도원에서 재배한 포도를 원료로 빚는다. 먼저 수확한 포도를 증류해 브랜디 원액을 만든 뒤, 이를 참나무 통에서 1~3년가량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제조 방식 덕분에 북한 내에서는 비교적 고급 술로 평가받는다. 숙성이 끝나면 머루즙과 과당을 더하고 증류수로 도수를 맞추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최종 제품의 성분 비율은 샘물 약 50%, 포도 브랜디 40%, 머루즙 7%, 과당 3%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머루 특유의 향이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전해진다. 이 술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수질도 맛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이를 위해 자강도 강계시 아미산 일대의 지하암반수를 사용한다. 2009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 만찬 자리에 이 술이 올랐고, 북측 대표였던 최성익 단장이 직접 대표단원들에게 따라주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도 다시 만찬주로 쓰이면서 한국에도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계사과

강계 지역에서 개발된 사과 품종으로는 강계1호와 강계2호가 있다. 강계1호는 1952년 삼월 품종과 붉은칠월 품종을 교배해 얻은 씨앗을 이듬해인 1953년 강계 지역에 심고, 그중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별해 육성한 품종이다. 추위에 강하고 생장 속도가 빠른 편이며, 잎은 둥근 모양에 크기는 중간 정도다. 5월 초순이면 옅은 장밋빛 꽃이 피고, 열매는 그로부터 석 달가량 지난 8월 초에 수확할 수 있다. 강계2호는 이보다 한 해 늦은 1953년 경암 품종이 자연적으로 교배되어 맺은 씨앗을 1954년 강계 지역에 심어 얻은 품종이다. 강계1호와 마찬가지로 추위에 강한 특성을 지녔지만, 나무가 곧게 자라면서도 생장 세력 자체는 그리 왕성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개화 시기는 강계1호와 비슷하게 5월 초순이지만, 열매는 조금 더 이른 7월 중순경에 익는다. 두 품종 모두 강계라는 지역명을 딴 만큼, 강계 지방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육성된 사과라 할 수 있다.

자강도의 사람 사는 이야기

"베일에 싸인 군수 공장의 도시, 자강도" — 자강도 출신 탈북민 김○○ 형제 인터뷰

자강도는 북한 안에서도 좀처럼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탈북민 사회에서도 자강도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군사·군수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탈북 루트조차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강도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한 김○○ 형제를 만나 그의 고향 이야기와 신앙 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강도공급탄광 광부들〈사진:노동신문〉

〈자강도, 태어나고 자란 곳〉

1. 먼저 간단한 이력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1990년대 자강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입대하고 러시아로 외화벌이 파견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탈북하여 N년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 자강도 안에서 탈북한 사례가 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강도 안에서만 살다가 탈출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저처럼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출장을 나갔던 사람만 탈북이 가능합니다. 자강도 경계 자체를 넘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3. 왜 그렇게 이동이 어려운가요?

군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강도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별 통행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4. 자강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북한 내에서 어땠나요?

북한에서는 자강도 사람들을 '조선 사람의 전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하며, 국가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강계정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손으로 공장을 돌리며 버텼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순수하지만, 다르게 보면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도 할 수 있죠. 저희 집만 해도 마을 근처에 군부대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집 근처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군인들 불러다가 밥 먹여 보내곤 했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인정이 많은 곳이에요.



강계정신을 강조하는 선전문구〈사진:통일시대〉

5. 자강도 외 다른 지역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었나요?

자강도 옆이 양강도인데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우선 말투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말투가 너무 투박하고 세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군대에 갔더니 양강도, 함경도 사람들은 지역 특유의 말투 때문에 수개월 동안 혼나고 두들겨 맞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릴 때부터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자라서 사람들이 아주 개방적이에요. 반면에 자강도 사람들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고지식하죠. 거기서 오는 차이도 크다고 생각해요.

〈군수공업 지역, 자강도의 실상〉

6. 자강도가 군수산업 지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살던 곳만 해도 한 군(郡) 안에 군수공장이 세 개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연합기업소' 같은 곳은 겉으로는 ○○공장, ○○○○공장으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강도 자체가 통째로 군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ICBM 발사체 예상지역〈사진:통일시대〉

7.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주민 대다수가 군수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통제가 극심합니다. 군수공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90% 이상은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해요. 군(郡)마다 국가가 허가한 작은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건 군수공장에 속하지 않은 일부 부양가족들만 운영할 수 있고 그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보따리 장사 같은 것도 자강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식료품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강도 수재민의 모습 〈사진:데일리NK, 2024〉

8. 배급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강도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 배급이나 전기 공급이 되는 곳이지만, 그마저도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한 달에 옥수수 50kg을 배급받기로 되어 있어도, 중간에서 다 떼어먹기 때문에 실제로는 30kg 정도밖에 못 받아요. 관리자들이 일부러 물을 부어서 무게를 불리거나, 모래를 섞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몰래 빼돌리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계급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합니다.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감시하는 구조라 이웃 간에, 심지어 동료 간에도 진짜 신뢰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어요.

9. 최근 언론에서 자강도가 러시아 무기 수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나요?

그건 국가를 위한 생산일 뿐,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공장이 더 돌아가는 만큼 노동 강도만 세지고, 주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공장이 돌아가니 전기나 최소한의 명절 배급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에겐 일거리만 늘어나서 죽을 맛일 뿐입니다. 일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깐 살기 위해 강제로 일하는 것뿐이죠.

〈고난의 행군, 어린 시절의 기억〉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운 생활상을 담은 영화, 자강도 사람들 〈사진:통일시대〉



10. 고난의 행군 시기를 자강도에서 겪으셨는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제가 소학교 저학년 무렵까지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고난의 행군 때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지역이 바로 자강도일 것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열 명 넘게 굶어서 죽었습니다. 쑥이나 칡뿌리로 연명하던 시절이었는데, 풀죽을 잘못 먹어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소금에 절이고 데쳐서 풀독을 빼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못 거치면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저희 또래는 대부분 소학교 입학할 당시 키가 채 1미터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시절 굶겨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강계의 추억〉

11. 강계에 방문한 적이 있으셨나요?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한번은 학교 다닐 때 모범 학생으로 뽑혀서 '배움의 천리길 답사 행군"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행군은 평양 만경대에서 출발해서 전천군, 강계시를 지나서 중강군 포평까지 약 2주간 걸어요. 강계에 있는 학생소년궁전에도 갔었습니다. 군 배치 받을 때에도 갔었습니다. 모든 자강도 학생들이 나이가 차면 군 배치를 받기 위해 강계 군사동원부로 모입니다.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중인 학생들 〈사진:조선중앙통신〉

12. 자강도 사람들에게 강계는 어떤 곳이었나요?

자강도 하면 강계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북한은 거주 지역이 계급이나 성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계 사람이라고 하면 비교적 좋은 성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은연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지식하기로는 강계도 다른 자강도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급에 의존하는 마인드도 비슷하구요. 개인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새로운 생각이 싹튼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강계나 자강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13. 자강도의 자연환경은 어떤가요?

강계를 비롯해서 자강도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해요. 가재는 1급수에만 살잖아요. 동네 하천에 가면 가재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물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높은 산이 둘러쌓여 있어요. 강원도 설악산도 높고 멋있지만, 자강도 산들도 그에 못지않게 멋있어요.



자강도 오가산자연보호구 〈사진:통일뉴스〉


자강도 강계시 야경〈사진:뉴스1〉

14. 그밖에 즐거운 추억은 없었나요?

강계에서 가장 기억남은 장면은 장자강변에 수백 명이 줄을 선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자강 중앙에 작은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말에 닭 한 마리를 100원에 살 수 있었어요. 당시 북한돈 100원이면 사탕도 사 먹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줄을 섰어요. 물량이 바닥나면 살 수 없으니까요. 아마도 당에서 강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지도를 보니 그곳이 안 보여요. 아마도 지난 홍수 때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남은 이야기〉

16. 한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올해로 N년 차인데, 알면 알수록 이 사회도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신앙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하고 있어요.

17. 고향 가족들과는 연락이 되시나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군사지역이라 24시간 주민들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주민들이 바로 인민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변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옥수수 밥이 흰 쌀밥으로만 바뀌어도 이웃들이 알 정도에요. 잘못하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연락을 하지 않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8.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무엇보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로 저희를 환대해 주시지만, 정작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실천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비친 강계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강계 소식

北, 장자강변에 대규모 불고기전문식당 개관



최근 북한에서는 냉면보다 불고기를 내세운 식당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신문은 최근 강계·평성·신의주에서 새롭게 문을 연 불고기 전문식당을 잇달아 보도했다. 이 가운데 강계 불고기 전문식당은 장자강 주변에 조성됐으며, 대규모 식사 공간과 가족 단위의 별실, 야외 식사 공간 등을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북한 매체는 이 식당에서 불고기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음식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지방 주요 도시의 식당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참조: 뉴스1, 2026.09.12.)

북, 도 소재지들의 면모일신을 위한 사업추진



북한이 각 도의 행정 중심 도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주거·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북부 산간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 재정비를 목표로 수천 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남포에서는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정비, 녹지 조성,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량강도에서는 물놀이장과 승마시설 등 여가·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함경남도 함흥에서는 대규모 주택 건설과 도로 포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조: 통일뉴스, 2026.09.11.)

북한도 전기버스 달린다… 평양 이어 강계에 20여대 투입



북한이 평양에 이어 자강도 강계시에서도 전기버스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계시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내버스 노선을 마련하고 약 20대의 전기버스를 투입했다. 이는 북한이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궤도전차나 무궤도전차와 함께 배터리 방식의 차량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버스는 별도의 전차 선로와 전선망이 필요하지 않고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기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전력 공급과 연료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전기버스 확대가 교통시설 현대화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 TV조선, 2026.08.25.)

무더위 식히는 北 강계시 물놀이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24일 자강도 강계시 북천 일대에 새롭게 정비된 물놀이장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 물놀이와 여가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매체는 시설 개선을 통해 강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조: 뉴스1, 2026.08.24.)

北 강계시 인민소비품전시회…신발 살펴보는 참관객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7월 22일부터 자강도 강계시에서 인민소비품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강도 지역의 100여 개 생산 단위가 참여해 수만 점에 이르는 각종 소비제품을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계신발공장이 제작한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참조: 뉴스1, 2026.07.29.)

北 강계설비조립사업소, 지방공장 설비 생산 90% 진척



노동신문은 농기계 생산·수리 기지를 비롯한 각지 지방공업공장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자강도 강계설비조립사업소는 시중군과 화평군의 지방발전 정책 대상지에 공급할 설비 생산을 이미 90% 수준까지 마쳤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참조: 뉴스1, 2026.07.14.)

北 노동신문, 농촌 주택 건설 선전…강계시 건설 현장 부각



노동신문은 강계시에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새로 지은 현대식 농촌 살림집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한 협의와 조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계시의 이번 살림집 건설 역시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농촌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발표한 이후 지난 4년간 전국 500여 개 농장, 1,860여 개 마을에 걸쳐 총 11만 3,000여 세대에 달하는 농촌 살림집을 지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참조: 뉴스1, 2026.05.27.)



北 자강도, 강계동물원 새로 개장

북한 자강도 강계시에 새 동물원이 들어섰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25년 12월 13일 강계동물원 준공식이 현지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자강도 관계자와 건설 관계자, 강계시 주민, 동물원 직원 등이 참석했다. 동물원은 강계시 내에서도 풍광이 아름답기로 꼽히는 외산지구에 자리를 잡았다.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됐으며, 사슴사와 맹수사를 포함한 동물 사육시설 10여 동을 갖췄다. 이와 함께 과학전람관과 파충류 전시관도 마련돼 관람객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물원 개장은 자강도가 최근 추진해 온 강계시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참조: SPN 서울평양뉴스, 2025.12.13.)

北 "자강도 강계 가죽이김공장 새로 건설“



노동신문은 자강도에서 강계 가죽이김공장을 새로 건설해 준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0여 동의 건물에 현대적 설비를 빠짐없이 갖춘 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해진다. (참조: 뉴스1, 2025.12.11.)

북한지역연구 호별 자료 목록

2023년 여름, 창간호, 평안북도 신의주
- 권두언 – 북한지역연구지 발간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관문 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징과 도시 구조, 편집부
- 신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협력에 대한 단상, 예동근 (부경대)
-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김성배 (숭실대)
- 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하충엽 (숭실대)
-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강동완 (동아대)

2023년 가을, 통권 2호, 강원도 원산
- 권두언 –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김성태 이사장
- 해양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편집부
-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진희권 (부산대)
- '강원도정신'과 원산의 기업,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신 복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김철성 (목원대)
-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조웅규 (조희렴 목사 차남, 전 국회의원)

2023년 겨울, 통권 3호, 라선특별시
- 권두언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김성태 이사장
- 북·중·러 국경도시 라선의 공간구조, 편집부
- 라선(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라진 하산 프로젝트 와 북러협력,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 조선장로교의 블라디보스톡 선교, 정호상 (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이찬욱(IBA 총무)
- 라선의 산업과 시장,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방후 북한의 동아기독교와 라선의 교회들, 안희열(침신대)

2024년 봄, 통권 4호, 개성특별시
- 권두언 –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김성태 이사장
-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 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백일순 (서울대)
-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김유연(한반도평화연구원)
-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 격차, 이시효 (숭실대)
- 소망의 언덕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김정용(전 개성병원 원장)
-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강명숙(역사학 박사)
- 개성의 문화유산 연구, 박성진(문화재청)
-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개성의 로컬리티, 편집부

2024년 여름, 통권 5호, 양강도 혜산
- 권두언 – 여호와 이레와 닛시의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국경도시 혜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편집부
- 혜산의 성결교회, 이한복 (서울신대)
- 혜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양강도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 가능성, 강동완 (동아대)
- 혜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 조성, 김성배 (숭실대)
- 코로나 이후 혜산 농민시장의 변화, 강미진 (엔케이투자개발)

2024년 가을, 통권 6호, 남포특별시
- 권두언 –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 김성태 이사장
-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남포의 도시 공간과 일상, 이시효 (숭실대)
- 남포의 산업시설 현황,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 남근우 (인천연구원)
-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불,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 남포와 은재 신석구 목사,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2024년 겨울, 통권 7호, 함경남도 함흥
- 권두언 –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선교의 모범 함흥지역 선교,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대표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 개발전략, 박희진 (동국대)
-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 흥남의 기원, 형성, 발전, 위영금 (정치학 박사)
-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함흥–흥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함흥 출신 탈북민)
-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 이야기, 이한복 (서울신대)
-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김미연 (산업은행)
-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 전인수 (강서대)

2025년 봄, 통권 8호, 황해남도 해주
- 권두언 –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명지대)
- 북한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셔우드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김철성 (목원대)

2025년 여름, 통권 9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명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숭실대)
- 닫힌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에스이노베이션)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침신대)

2025년 여름, 통권 9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명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숭실대)
- 닫힌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에스이노베이션)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침신대)

2025년 가을, 통권 10호, 황해북도 사리원
- 한국교회의 요람으로 황해도 지역교회와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사리원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사리원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명지대)
- 평양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황북의 도심, 사리원시 공간구조,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사리원 기행: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황해도 중심부,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
- 사리원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한위렴(William B. Hunt) 선교사의 재령선교와 한국 장로교회, 박응규 (아신대학교)
- 황해북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 한화룡 (백석대학교)

2025년 겨울, 통권 11호, 평양(平壤)직할시
-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편집부
- 대동강을 문화공간으로!, 노현종 (서울대)
- 평양 공간격차와 도시민의 삶_ 이시효 (명지대학교)
- 문학 작품을 통해 본 평양의 역사와 풍광, 권순긍 (세명대학교)
-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마포삼열(Samuel A. Moffett)과 평양 대부흥운동, 박응규 (아신대학교)
- 해방 후 한국정치와 기독교민족주의자 조만식, 박명수 (서울신대)

2026년 봄, 통권 12호, 평양(平壤)직할시 2
-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평양소재, 편집부
-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 한지만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공동연구원)
- 북한의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
- 김정은 집권 2기 평양 살림집 건설의 특징
-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평양대부흥 이후 – 현재)
- 평양에 설립되었던 감리교회의 신학교육 기관들, 고성은 (목원대학교)
- 평안남도에 세워진 성결교회, 이한복 목사(정선교회)
-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발전, 전준봉 (칼빈대학교)
- 여성 목회자의 산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 김일환 (서울장신대학교)

2026년 여름, 통권 13호, 함경북도 회령
- 함경북도 회령시 개관 편집부
- 회령시와 관문경제의 형성 : 국경, 역사, 이동, 그리고 생존이 만든 구조, 곽인옥 (통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회령사: 국경 교역 통제와 산업 잠재력 발현의 역설, 김병욱 (NK개발연구소 소장)
- 회령(會寧), 경계에 갇힌 송결인가 대륙으로 향한 맥박인가,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컨설팅 대표)
- 전거리 교회소에서 만난 하나님
- 회령의 교회를 찾아서
-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 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 용정(龍井, 룽징) 바라보기,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위의 모든 자료는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 자료실 – 발행자료** 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Open 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카카오톡 채널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한다.

폭력 | 개인 생활 | 가족 생활 | 공동체 생활 | 국가 생활 |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41-60점
- 매우 높음 61-80점
- 극심함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 = 순위

	국가	총점
1	북한	97
2	소말리아	94
3	예멘	93
4	수단	92
5	에리트레아	90
6	시리아	90
7	나이지리아	89
8	파키스탄	87
9	리비아	87
10	이란	87
11	아프가니스탄	86
12	인도	84
13	사우디아라비아	82
14	미얀마	81
15	말리	81
16	부르키나파소	80
17	중국	79
18	이라크	79
19	몰디브	79
20	알제리	77
21	모리타니	76
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75
23	모로코	75
24	쿠바	73
25	우즈베키스탄	73
26	니제르	72
27	타지키스탄	72
28	라오스	72
29	콩고민주공화국(DRC)	72
30	멕시코	71
31	튀니지	71
32	니카라과	71
33	방글라데시	71
34	부탄	71
35	투르크메니스탄	71
36	에티오피아	70
37	카메룬	70
38	오만	70
39	모잠비크	69
40	키르기스스탄	68
41	튀르키예	68
42	이집트	68
43	코모로	68
44	카타르	67
45	카자흐스탄	67
46	네팔	67
47	콜롬비아	66
48	차드	66
49	요르단	65
50	브루나이	65

한국오픈도어선교회(문의 02-596-3171 /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